
第14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6年12月4日(水) 午前10時

議事日程

1. 1995會計年度서울特別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1995會計年度水道事業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1995會計年度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4. 統合醫療保險法案制定促求建議案
 5.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關한質問
-

附議된案件

1. 1995會計年度서울特別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 2面
 2. 1995會計年度水道事業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 2面
 3. 1995會計年度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 7面
 4. 統合醫療保險法案制定促求建議案(保健社會委員會 委員長提案) ... 10面
 5.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關한質問 ... 13面
-

(10時 44分 開議)

○議長 文一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

었으므로 제14회 서울特別市議會 정기회 제4차 本會議를 개
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 1995會計年度서울特別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
件
2. 1995會計年度水道事業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
承認의件

○議長 文一權; 의사일정 제1항 1995會計年度 서울特別市 歲
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의 件과 의사일정 제2항 1995
會計年度 水道事業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
의 件,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地方自治法 제120조제2항 및 同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地方自治團體長은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다음연도 地方
議會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白南善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
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南善 議員;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豫算決算
特別委員會 白南善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지
금부터 서울特別市長이 제출한 의안번호 489호, 1995會計年
度 서울特別市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과 의안번호
556호 1995會計年度 水道事業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
備費支出承認을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이 지난 8월 27일, 그리고 1995會計年度 水道事業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이 9월 20일에 서울特別市로부터 우리 議會에 각각 제출되어 소관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를 거쳐 議長으로부터 10월 28일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當 委員會는 10월 29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1995會計年度 서울特別市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과 1995會計年度 水道事業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을 상정해서 서울特別市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서울市の 자료제출이 불충분하여 주의 촉구와 함께 결산 심사를 보류하고, 12월 20일 제14회 정기회 제1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앞에 말씀드린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1995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과 관련한 전반적인 시정운영 실태를 비롯해서 市 재정운용계획과 체납시세 징수문제, 이월금, 기금문제, 地方自治團體의 경비부담 문제 등 市 재정운용의 구체적인 사항과 환경, 교통, 시민복지, 상수도 등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서울市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가 우리 議會에 제출한 1995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會計年度 서울特別市の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조 9,267억 6,6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16.9%인 9조 2,697억 4,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인 7조 2,908

억 9,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조 9,788억 4,4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비 3,927억 2,400만원, 사고이월비 4,513억 9,900만원, 계속비 242억 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7,0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조 1,065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5,291억 6,4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 4,809억 8,100만원으로 1조 481억 8,3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해서 이중 명시이월 920억 6,800만원, 사고이월 2,504억 9,200만원, 계속비 이월 242억 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7,0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774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4조 1,131억 7,4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조 7,405억 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8,099억 1,500만원이며, 이월액은 9,306억 6,1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3,006억 5,5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2,009억 600만원을 공제하고 세계잉여금은 4,290억 9,900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3조 5,693억원, 세외수입 7,403억원, 지방교부세 18억원, 보조금 769억원, 지정재원 1,408억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79억원, 일반행정비 1,672억원, 사회복지비 3,711억원, 산업경제비 577억원이고, 지역개발비가 1조 3,429억원, 문화 및 체육비 5,475억원, 민방위비 1,330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등에 8,535억원 등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1995會計年度 세출예산 불용액은 8,436억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9.4%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률 14.6%

에 비해 5.2% 하락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8% 하락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2,283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5.6%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률 7.4%에 비해 1.8% 하락하였으며 전년도대비 0.7% 상승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6,153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3.0%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률 20.2%에 비해 7.2% 하락하였으며 전년도대비 2.7% 하락하였습니다.

넷째,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1995년도 채권현재액은 2,366억원으로 1994년도 말에 비해 2,24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1995년도말에 채무현재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조 798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1,0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1만 5,690개의 현재액 868억원으로 94년도말에 비해 수량 902개, 금액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22조 3,721억원 상당의 금액이며, 94년도말에 비해 금액 5조 1,012억원 상당이 증가하였는데 주원인은 토지가격산정을 종전에 지방세과세표준으로 하던 것을 95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기금 및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5년도말에 현재 구호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 현재액은 4,789억원, 1994년도말에 비해 3,1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세출의 현금현재액은 46억원으로 1994년도 말에 비해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95년도 예비비예산

액은 959억 500만원으로 이중 지출결정액은 575억 6,400만원에 지출액은 522억 2,000만원이고, 이월액은 22억 5,7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은 30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합목적성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행적으로 지적되었던 예산의 전용, 불용액 과다, 연도말의 무더기 사고이월,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을 지적하여 앞으로는 최소화할 것을 집행부로부터 다짐받고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5會計年度 서울特別市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과 1995會計年度 水道事業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1995會計年度 서울特別市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의 件과 1995會計年度 水道事業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의 件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3. 1995會計年度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1時)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會計年度 서울特別市 教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成聖鏞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聖鏞 議員; 안녕하십니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民主黨 所屬 成聖鏞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特別市教育廳이 제출한 1995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5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이 지난 9월 2일 教育廳으로부터 제출되어 所管 文化教育委員會의 예비심사를 거쳐 議長으로부터 10월 28일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10월 29일 제90회 臨時會 제1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1995會計年度 서울特別市 教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을 상정하여 教育廳 管理局長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들었

습니다.

이에 執行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던 중 불충분한 자료 제출과 委員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있어 충분한 답변준비와 자료제출을 위해 회의를 마치고, 11월 20일 제14회 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次 委員會에서 계속하여 1995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 支出과 관련된 교육운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당면한 현안 문제점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執行部の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教育廳이 우리 議會에 제출한 1995會計年度 서울特別市 教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教育費特別會計의 歲入·歲出決算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歲入決算額은 예산액 2조 1,268억 7,600만원의 106.3인 2조 2,601억 1,800만원이고, 歲出決算額은 96.4인 2조4,907억 2,600만원으로 歲入·歲出決算 差減額인 세제잉여금은 2,103억 9,2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420억 8,400만원과 사고이월비 441억 8,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인 1,241억 2,400만원입니다.

歲入決算 구성내용은 자체수입이 전체수입의 16.7%인 3,770억 7,9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의존수입은 83.3%인 1조 8,830억 3,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 대부분을 中央의 교부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비율 16.7%는 최근 3년간 평균 비율 20.1%보다 3.4% 하락하였습니다.

歲出決算에 있어서는 예산액 2조 1,268억 7,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89억 6,2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 2,058억 3,8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조 497억 2,600만원으로 예

산현액 대 지출액 비율은 92.9%였습니다.

둘째,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698억 4,400만원이고, 불용률은 3.2%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5.4%에 비해 2.2%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4.1%에 비하면 0.9%감소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취소 152억 200만원, 예산집행 지연 4억 5,000만원, 예산절감 2억 1,9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95억 2,400만원, 집행잔액 444억 9,400만원입니다.

셋째, 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862억 6,8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비는 16건에 420억 8,4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04건에 441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넷째,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6억 8,600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액 4,100만원에 비해 136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고등학교 체제개편 계획에 의한 둔촌공고 신설 19억 7,700만원, 한성과학학교 원거리 통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증축비 8억 4,000만원, 서울敎員研修院 이전확충비 29억원, 西部敎育廳 청사 신축공사비 20억원 등으로 총 77억 1,700만원이 신규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9조 3,627억 100만원, 잡종재산은 3,563억 4,900만원으로 9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조 7,190억원 상당이며 94년도말 2조 3,719억 9,900만원에 비해 7조 3,470억 5,1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地方財政法施行令 제81조에 의거, 5년마다 가격의 재평가 때문입니다.

끝으로 1995회계연도의 예비비 사용은 초·중학교 위험시설

보수와 재해복구비로 12억 3,2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억 1,300만원이 지출되고 8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1억 3,5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번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그 심의과정에서 교육행정 전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치밀한 심의절차를 마쳤으며, 특히 95년도 예산집행중 일부분 區에서 입법과 과목을 議會의 동의없이 이용 집행한 사실이 있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委員會에서 관계관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會計年度 서울特別市 教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1995회계연도 서울特別市 教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件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4. 統合醫療保險法案制定促求建議案(保健社會委員會 委員長提案)

(11時 14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統合醫療保險法案制

定促求建議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保健社會委員會 崔鍾午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午 議員; 안녕하십니까? 保健社會委員會 소속 崔鍾午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을 모시고 統合醫療保險法案制定促求建議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지난 77년 대기업 사업장에서 직장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된 이래 89년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간의 재정격차로 인해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373개의 크고 작은 조합으로 나누어져 분리·운영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1995년말 현재 약 4조 3,000억원의 적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을 조합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이 적립금을 보험급여의 확대와 진료일수 연장, 본인부담금 인하 등 국민보건 향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둘째, 재정이 이원화됨으로써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와 위험분산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과도한 관리운영비 투입으로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保健福祉部 예산의 40에 달하는 7,000억원을 지역의 보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쏟아놓고 보니 여타 주요 福祉産業 예산의 절대적 빈곤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부담능력이 없는 농민이 도시 자영자나 직장근로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 보험급여의 대폭 확대, 본인부담의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保健社會委員會에서는 지난 12월 2일 常任委員會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한 결과, 최근 政府 國務總理室 직할로 구성된 의료개혁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료 개혁과제로서 의료보험 통합문제를 다루어 이번 定期國會에서 반드시 醫療保險統合法案이 제정·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保健社會委員會에서 제안한 統合醫療保險法案制定促求建議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保健社會委員會에서 제안설명한 統合醫療保險法案制定促求建議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촉구건의안
(뒤에 실음)
.....

5.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關한質問

(11時 18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은 모두 여섯 분 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議員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執行部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都市整備委員會 소속 金周喆 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周喆 議員;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영등포 제3선거구 都市整備委員會 金周喆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趙淳 市長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本議員이 질의에 앞서 어제 국민일보 보도를 접하고 서울시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오늘 本議員이 강남구 도곡동 주택단지 한복판에 초고층 102층 삼성빌딩 건축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특혜성과 市長의

녹지보전시책에 역행하는 양재천변 도로확장 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執行部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하여 本議員의 질의에 김을 빼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公職者로서의 양식으로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 빌딩 신축으로 예상되는 도시의 제반문제를 市民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地籍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市의 지적정리 측량조사는 일제시대에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市는 변화가 있고, 이 시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1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발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法的問題를 제기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한다면 어느 지적에서는 측량도 근점에서 측량을 하였을 때 약 1m 편차가 나는 점도 있으며, 많게는 2m까지 밀리는 현상이 法的 다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책을 하루속히 개선하여 전체적으로 측량하여 불합리한 지적을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방대하고 광활한 서울市 지적정리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때만이 많은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市에서는 공원시설물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위탁료 즉, 사용료 관리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시설의 효과와 관리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신규재원을 적극 발굴하는 차원에서 공원위탁 사용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대공원의 공원이용료에 대하여 本議員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공원이 서울랜드에 위탁한 킹콩버스, 코끼리열차 관리위탁 수수료 수입을 보면, 1995년도의 경우를 보면, 코끼리열차가 약 2억원, 킹콩버스가 약 4,000만원이었고, 96년도의 경우는 11월까지 코끼리열차가 2억원, 킹콩버스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서울랜드의 코끼리열차, 킹콩버스 위탁료수입으로 서울시가 총 수입의 10공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연간 30억원 이상 재원발굴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왜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本議員이 이 자리에서 서울대공원 내 72개 매점시설에 대한 지명수의계약 부분을 지적하여 경쟁입찰식을 도입한 결과, 몇 십배의 수입을 증대시킨 바 있는데 市長께서는 킹콩버스와 코끼리열차 등 공원시설물에 대해 수의계약 사례가 있다면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외에도 많은 공원시설물 운영에 대한 경영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趙淳 市長께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역 고가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 고가도로는 200억원 이상 들여 완공한 지 석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차량이 러시아워시간에는 다닐 수 없는데도 도로를 만들어 놓고 市長께서는 차량통행에 대해 보고받은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 고가도로에서 150m쯤 떨어진 도림로 확장 도로는 일

본 사람들이 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을 5년마다 재고시하여 지금까지 확장을 못하고 일련의 배급주는 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교통방송에 등록되어 있는 문래동고가도로입니다. 교통방송을 趙淳 市長께서는 들으시는지 묻습니다.

이런 도로는 수십년 동안 걸려서 몇 백억원씩 들어서 완공한 도로는 대기업 백화점 3개가 밀집돼 있는 특혜라고 本議員은 생각되는데 市長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여건을 파악하시고 조치와 趙淳 市長의 명백한 계획을 발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폐기물건조시설 설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市가 운영하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내의 1일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농수산물 1일 반입량은 약 7,500톤으로 8톤 트럭 3대분으로써 9개 도매법인업체가 전담 처리하고 있으며 둘째, 폐기물 유발 부담금은 배추가 톤당 3,000원, 마늘이 톤당 5,000원, 무가 톤당 1,500원, 대파가 톤당 500원, 양배추가 톤당 400백원이고 셋째, 폐기물 처리는 1일 폐기물 발생량 400톤에서 500톤 정도로 이에는 깡통, 캔, 병, 종이박스, 비닐, 스티로폼, 나무상자 등 150톤이 포함되어 있어 3개 처리업체가 일괄처리할 경우, 비용이 톤당 1만 4,800원 정도가 들며, 김포매립지역에 전량 매립 처리하여 96년도 처리비용은 약 5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체소각장 시설미비, 住民 민원으로 가동 불가하며, 농수산물 폐기 또한 수분함량이 80%이므로 매립지

침출수 발생에 따른 문제로 반입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폐기물건조시설의 설치와 건조 후 그린사료로 폐기물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축산사료의 원가절감 즉, 섬유질 사료 수입 대체효과가 있으며 약 70%의 폐기물 감소를 할 수 있고, 교통량 축소에서 많은 기대효과가 확실히 예상되는데 本議員의 제안에 대해 市長의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부합된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議員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아주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交通委員會 所屬 金亨吉 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亨吉 議員; 질의에 앞서 질의요약 세번째 난에 노하우가 영어 스펠링이 잘못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議長,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그리고 趙淳 市長과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저는 銅雀 第6선거구 출신 金亨吉 議員입니다.

오늘 제14회 定期會를 맞아, 더욱이 民選市長 중간평가 시점에 즈음하여 천백만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시정발전 반영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本議員의 질의가 다소 미미한 점이 있더라도 폭넓은 시각으

로 이해해 주시고 진솔하고 투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市長은 취임 후 서울시정에 대해 벼랑 위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첫 소감을 말씀하였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등반에서 이제 겨우 제2캠프를 설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민 일각에서는 5만 4,000여 명의 公務員과 8조 6,100억원의 예산으로 누군들 못하겠는가, 또 자치 이전의 시정과 크게 달라진 것이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형식적인 전시행정 위주라는 비난으로 임기 중간시점에 市長은 어떤 소감을 갖고 있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정에 대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떠나가겠다고 공언한바, 경제학자로서 이론과 실제에 실천과 실적이 일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本議員의 시각으로는 이론과 실제의 시정이 여건상황에 따라 엄청난 괴리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경영마인드 시정을 펴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재임중 중반기 평가에서 천백만 시민과 議會에게 떳떳하고 제일 자랑스런 시정은 무엇 무엇이고, 제일 잘못된 시정은 무엇 무엇인지 자성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는 의미에서 투명하게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議會와의 관계 시각에서 볼 때 수레바퀴 개념, 동반자적 관계 유지를 부르짖는데 같은 民選市長, 같은 民選議員의 입장에서 이해는 되나 실제 執行部와의 시각에서 풀뿌리 지자체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겉과 속이 다른 관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제도가 있어 마지못해 유지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나 우리 市의 각 분야별 정책결정에 議會는 따라오라는 식도 있고, 형식상 절차를 밟기 위한 매체기구로 착

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잔여기간 동안이라도 執行部와의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인정치 않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좋아하지 않는 3D현상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제87회 임시회의 본회의장 질의시간에 화장실에서 아직도 執行部 幹部가 同僚議員들이 짧은 머리카마 열심히 연구 조사해서 질의하는데 적당히 하지, 빨리 끝내지 하는 표현은 참 가소로운 일입니다.

또 시민의 대표로서 자료요청에 기피현상, 시간끌기 등으로 볼 때 민선시대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의식개혁은 물론 낡은 관행과 악습을 버리고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야만 市民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에 市長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정책결정에 있어 교수정책이 많이 반영되어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가진 기업체 간부들의 참여를 권하고 싶은데 市長의 견해는 어떤지요?

다음은 市 재정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서 순수하게 이월액이 1조 1,065억원이 되어 많은 同僚議員들로부터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팽창재정 운용을 방만하게 편성하지 않기로 책임 있는 답변에서 96년도 예산 8조 6,125억원 편성에 금년말 기준 사고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은 어떻게 추계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입·세출의 획기적 관리의 효율성 평가자료로서 세금을 내는 데는 큰 관심이 있고 세금을 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 市民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또 이런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9월말 기준 상업은행 평잔이

공금성 예금으로 일반회계가 1조 2,000억원, 특별회계가 5,700억원, 합계 1조 7,700억원이 됩니다. 너무 무모한 재정 운용이 아닙니까?

市民의 세금은 내 돈이 아니니까, 市民의 세금으로 불황을 모르는 세금을 관리하는 식에서 상업은행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꼴로써 市長은 주기적으로 수시로 평잔을 체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市 부채감소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市 부채는 93년도 3조 6,607억원, 94년도 4조 4,033억원, 95년도 4조 6,932억원, 96년도 4조 8,777억원, 97년도는 5조 1,379억원, 99년도에는 8조원으로 추정되어 해마다 원리금이 증가되고 연 전체 예산의 55를 상회하여 99년도에는 75%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만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IMF의 서울市 재정진단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매년 증가되는 부채의 상환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政府와의 국고지원금 증액 대책 및 국세인 유흥음식세 등 일부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서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市長은 공정한 인사, 내실 있는 행정, 부패방지의 공개행정, 현장위주의 행정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문성 위주의 인사배치가 우선 되어야 되고, man power가 평가되고 노하우를 유지관리하는 데서 신바람나는 행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都市鐵道公社 監事 발령에 있어 정관 제9 조제3항에 理事 및 監事の 임명자격 기준은 첫째, 公企業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들

째,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專門家 및 市民의 대표 중 1에 해당하는 자가 임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公企業의 정관을 무시하고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이 임용하고, 또 향후 地下鐵建設本部로부터 계통에 따른 현물출자 인계인수에서 중책의 자리인 技術理事職에 부정과 관련된 下水局長을 발령한 것은 市民의 눈을 잠시 피하는 졸속인사 행정으로 서울시의 인사난맥상을 드러낸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원칙의 인사정책이 그늘진 곳에서 사명을 다하는 公務員들의 비전을 실종시키고 비난과 더불어 사기저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해 市長은 알고 있는지, 또 정관을 무시하면서까지 무기준, 무원칙의 인사발령에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市長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보상 리콜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명감 고취, 주인의식 강화, 작은 것부터 평가하고 실천하는 봉사행정 등 정성적 목표관리가 크게 요청되는 이 시대에 민간기업에서 리콜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금융업계에서도 장시간 대기하는 고객에게 천원의 보상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도 公務員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지서 발급 착오 또는 오류공문, 민원실의 대기약속시간 위반 등 市民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때 신뢰성과 신바람 조화를 이루는 행정으로 제도적으로 보상해 주는 리콜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돗물 안전면에서 세계적인 수질기준에 맞춰 관리하여 시민과 함께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기를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생수의 이용률은 급증하는 반

면, 수도물 이용률은 94년도 9.6%, 95년도 8.7%, 96년도 6%로 감소통계되고, 팔당상수원 주변 위락시설 등 오염유발 시설이 90년도에 3,500개에서 95년도에는 5,500개로 오염유발이 심한 데서 불신과 생화학적 BOD가 1.2ppm에서 1.4ppm으로 나빠지고 있는데도 자신 있게 권장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市民의 불신을 씻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길은 오직 市長 이하 執行部가 직접 마시고 있는 홍보와 더불어 11개 水道事業所, 9개 淨水事業所 시내 주요지점에 수질검사를 생수와 대비하는 전광판설치광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市長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둘째, 쾌적한 주거환경,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에서 市民과 함께 하는 SGP21 수립과 環境委員會 가동도 좋지만 5만 4,000여명의 公務員부터 공감대 형성과 실천력 있는 기본적 의식 개혁운동인 청소, 청결, 정리, 정돈, 습관화의 5S운동을 캠페인으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地下鐵公社 경영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市長, 市長은 경제학자로서 임기 중반시점에 地方公企業의 경영실태에 대해서 과감한 처방을 기대합니다.

현재 地下鐵公社는 수권자본금 2조 4,000억원, 불입자본금 2조 1,122억원, 미불입 자본금은 2,878억원이고, 적자누계는 금년말 기준 추정액이 2조 4,000억원으로써 자본잠식이 2,878억원 선이 초과되고, 부채누계도 95년도말 기준 3조 1,213억원으로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부담액도 8,934억원으로 계산되며, 99년도에는 부채가 4조원으로 추계되어 기네스 북에 실릴 정도의 公企業으로 매년 부채 갚기 위한 예산편성과 공기업 브랜드로 차입금을 가중시켜 市民의 간접부담을

초래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公社側은 경영합리화니 감량경영이니 미려한 정책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없이는 公企業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첫째, 수권자본금 미불입자금 2,878억원 전액을 편성해 주시고, 추가 수권자금을 늘려주며, 공사내 각 노선별 사업부제를 도입, 본부장 제도하에 책임경영으로 운영 쇠신한 후 정착된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노선별 민간기업에 불하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또 상계동 창동기지는 현재 3면이 주택, 아파트촌으로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곽이전비의 대체차로 부실 재무구조 개선의 한 방안이라고 묻고 싶은데 市長의 견해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처방으로 부실 地方公企業에 대해서 재정면에서 市長 재임중 개선시킬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都市鐵道公社의 현물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 都市鐵道公社는 자본금 3조원, 납입자본금 1,500억원이고, 1995년 11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통 6개구간을 운행 관리하고 있으나 1년이 넘는 구간, 8개월이 넘는 구간에서 조차도 시설물 인계인수에서 아직도 일부 미인수된 상태이고, 현물출자 자산 인수에 있어 서울시의 회계제도가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단순집계자료만으로 취득원가를 검증할만한 객관성이 없으며, 투자금액도 산출기준도 건설사업이 집행과정에서 특별회계절차에 따라 정산 지출된 금액을 적산 산출하였다 하나 단순 수입, 지출만 명기된 회계서류로서는 산출기준의 신빙성 및 객관성이 없어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재무제표가 전제가 되고 객관적인 공정한 취득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이 요청됩니다.

국고보조금도 都市鐵道法에 따라 地下鐵建設 支援金으로 서울시 자체자금으로 포괄처리 인수한다면 그만큼 결손금을 안는 결과로 자본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으로 인계해야 되지 않겠는지, 市長의 현물출자 인수인계 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銅雀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라매공원 후문 주변 동작구 신대방동 706번지, 관악구 봉천동 1696번지 외 5개 지역이 용도변경하여 개발이 시작된 지 5년이 넘도록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입주된 보라매 우성아파트의 경우에는 동일단지내 아파트 벽을 두고 행정구역, 지번, 관할 동사무소, 학군 등이 달라 삶의 질 향상에 어긋나는 엄청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경계지역 건물 허가권자도 우성아파트, 서해아파트, 나산 스위트는 동작구, 해태 보라매주택조합, 롯데 주상복합빌딩은 관악구 소관으로 행정의 비생산 및 사각지대화 우려로 91년 7월 15일부터 경계조정이 10여 차례 있었으나 지금까지 실제 양 자치구 간에 협의 조정 건의하라는 案만 있었고, 실제 양 자치구는 이해득실 및 정책적인 면에서 조정이 어렵고 地方自治法 제4조제1항에 의거, 경계상 고려가 되나 실질지형, 행정관리면에서 內務部 행정구역실무지침에 의하면 경계는 산, 강, 도로 등 적절한 지형지물로 확정토록 한바, 하고 싶어도 법이 그러니까 하는 비능률적인 행정보다도 市차원에서 적극 참여하여 10m, 20m의 진입로보다도 20m 신림로와 40m 신대방로를 기준하여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市長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동작구 동작동 산 11번지 주택 일대는 1969년부터

181가구 208세대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화장실 따로 집 따로 27년간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어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재개발구역 지정요청, 73년 12월 1일 건설부고시 제470, 82년 8월 26일 건설부고시 155호에서 재검토 지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市차원에서 눈에 띄는 데만 화장하는 식 개발보다도 음지의 개발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劉仁鍾 教育監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教育監 선출시 教育者로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사태에 대해 이제는 교육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투명한 교육정책을 펴 주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학원가 폭력근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바른인성, 가치관교육, 창의성.잠재력 계발, 학습방법 혁신, 열린 교육풍토, 현장중심교육은 교육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이념에 반해 참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화장실, 복도, 다른 반 교실에까지 끌고가 쉬는 시간에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있어도 후일이 겁나 어린 심정에 노출도 못하다가 결국 도태되고 독버섯들만 키워주는 환경이 되고 말았고, 초등학교까지 확산되어 멍이 들고 가두는 사태가 있어 학교가 무서워요에서 우리 기성인 다 같이 가슴치고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전문 지도교사의 단속은 유흥가, 우범지대의 보이는 곳보다도 뒷골목을 중점 점검하고 문제학생 인맥 등 질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추궁보다도 선도교육에 치중하여 펴 나가고 있는지, 그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가출소년 학생이 서울에서는 유흥업소, 주유소, 불

건전 아르바이트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숫자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교육적 차원에서 일본에서 실시하는 문제학생, 가출학생에 대해 정서교육학교를 설치해 전문적인 인간교육을 통해 재탈선 방지, 바로잡는 교육정책을 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유치원 교육비는 항목별로 묘하게 변형시켜 교육비는 월 11만원, 입학금 15만원, 운영비 13만원, 특별활동비 7만원, 혼지 10만원, 버스기사 3만원 등 월 60만원 이상 소요되어 대학교에 버금가는 과다 교육비로 가진 자만이 유치원에 보내는, 교육적 차원에서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각 유치원의 심층 監査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初·中學校도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유치원도 공영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흐름에 있어 물질에 비중을 두지 말고 스승으로서, 敎育者로서 백년대계의 인재를 키우는 자세에 대해서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제한된 시간이라서 더 많은 질문사항이 있으나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經濟委員會 所屬 金洪奎 議員의 질문이 있습니다.

金洪奎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趙淳 市長님과 劉仁

鍾 教育監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議員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運營委員會 幹事와 財務經濟委員인 金洪奎 議員입니다.

本議員은 서울의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行政事務調查委員長으로 활동한 내용 중에서 꼭 시정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이번 行政事務調查에서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삼입토록 하고 오늘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쪽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매시장 관리운영 형태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가락시장의 관리 운영 형태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입니다.

가락시장의 지도감독기구로서 개설자인 서울시와 管理公社가 병존함으로써 소위 옥상옥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가 중복되고 행정절차가 다단계로 거침으로 하여서 유통행정애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리주체인 管理公社가 현재와 같은 地方公社 형태로는 가락시장 지도감독에 필요한 실질적 권한 확보가 불가하여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있다라는 것을 趙淳 市長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行政權限委任및委託에 관한 規程 제11조에 의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민간위탁이 불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리상 管理公社가 확보할 수 없는 주요 권한은 도매시장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지정 취소권, 업무정지권, 검사권, 업무집행 상황보고 명령권, 과태료 부과권, 평가 및 결과에 따른 조치권과 중도매인의 허가, 허가권 취소, 업무정지권, 과태료 부과권, 평가 및 결과에 따른 조치권, 기타 행정 대집행권, 거래질서 단속권, 비위생식품의 수거 검사 및 폐기권 등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도매시장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私法人이 수탁판매권 즉, 경매권을 독점함으로써 都賣法人 지정에 따른 특혜 시비와 함께 경매사의 私法人 소속으로 인해서 공정성 시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1996년 11월 30일 바로 엇그제입니다. 엇그제 KBS 2TV 추적 60분을 아마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는 농민 울리는 경매제도라 하여서 그 피해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일시장 내 다수 都賣法人의 별도 경매로 일물다가의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상장 법인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똑같은 한 가지 물품을 가지고도 여러 군데 놓다 보면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의 법인 소속제가 사실상 존재하고, 법인별 경매실시로 품목별 전문 중도매인 간의 자유경쟁이 제약을 받고, 이로 인해 경매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구상에 경매제도는 아마 우리 나라 말고 日本하고 臺灣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매제도를 취급하고 있는 日本과 臺灣에 비추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日本 東京都의 사례입니다. 11개 도매시장으로 총 관

리대상면적은 지금 현재 우리 가락동시장의 2배의 면적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기구형태로는 公務員 조직으로 총 7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가락동 시장에는 약 28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一般會計方式이 아닌 公企業 會計方式을 취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地方公企業法上의 직영기업과 유사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공권력 발동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강력한 지도 감독 체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臺灣 臺北市의 사례입니다.

도매시장관리와 운영이 일원화되어 公共法人에 의해 직접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私法人인 都賣市場法人이 그 이익금을 가져가는데 반해서 臺灣의 경우는 이익금의 배당이 철저히 제한되며 이익금은 생산자 지원사업, 즉 공익목적에 재투자되고 있다라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1.6%라는 저율의 상장수수료로 농민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5 내지 7%의 상장수수료를 물고 있습니다. 즉, 公共法人에 의한 관리운영 일원화로 공공성 제고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락시장의 관리형태인 管理公社形態 즉, 地方公社形態는 강력한 지도 감독체제도 아니고 공공성 제고와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한 체제도 아니고 모호한 체제를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리주체이며 개설자인 서울市の 農水産流通課와 管理公社를 통합, 관리주체를 일원화하

고, 공권력 행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地方公社 형태를 地方直營企業化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수탁판매기능을 수행하는 경매사를 管理公社 직원화 하여 管理公社가 직접 가락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공설시장에 불과한 가락시장을 명실상부한 공영도매시장화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성 제고, 일물일가 실현, 상장수수료의 대폭 인하를 통한 농민보호법인 소속제 실질적 폐지로 경매제의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확고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가락시장은 시설구조면에서 평면구조 및 비효율적 시설물 배치,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도 위험, 적정 취급능력 대비 약 170취급, 하역업무 기계화에 부적합한 시설 구조, 냉동창고 등 물류 지원시설 부족, 유통인 복지시설 미흡, 주차시설부족, 도심화로 인한 주변 주민으로부터의 생활민원 제기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

松坡區에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WTO 시대에 적합한 21세기 百年大計를 도모하는 대체시장개발을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 마스터플랜 수립과 아울러서 국내의 전문인으로 하여금 타당성을 연구토록 해야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가락시장 매각대금으로 서울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현행 農安法에 비합리적 요소가 많다고 알고 있으며 유사 도매시장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農安法은 가락시장법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長님께서 차제에 도매시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中央政府에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 있는 거래 제도를 마

련해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市長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따라서 약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가락동 도매시장의 공사 社長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公採社長입니다. 公採로 해서 趙淳 市長님의 경영마인드와 公採社長の 경영마인드를 알파 플러스시켜서 그야말로 우리 가락동 시장이 원만하게 정말 공영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市長님이 확실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우수지 복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趙淳 市長님 취임 후 市政 운영계획이 임명직 市長과 달라진 市政이 있다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도심녹지공간 확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本議員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도시안전문제, 교통문제 등 서울市の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이러한 도심녹지공간 확보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서울市 재정형편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즉 우수지를 복개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紫陽洞에 위치하고 있는 우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500평의 우수지가 있습니다. 이 우수지에는 그야말로 여름이면 파리와 모기가 들끓고 항상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언제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

습니다. 이러한 데를 잘 복개를 해서 여기에 녹지공간과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면 주거환경이 쾌적해질 것이라고 本議員은 믿습니다.

복개하는 데 아마 현재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사 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고 아주 이상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요즘 시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시내 버스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市에서는 버스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하지 않고 버스회사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罰金賦課, 是正命令, 行政指導 등의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고, 버스노선의 조정문제도 버스회사의 수익성만을 생각하여 장기적인 대책 없이 그때 그때 조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서울市民을 무시하고 市民의 발을 묶는 졸속행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7번 시내버스는 松坡區 長旨洞에서 출발해서 동서울터미널을 정류하여 紫陽洞 금관예식장 및 건대전철역에서 정류하고 華陽里에서 회차하여 민중병원에 정류한 후 長旨洞 車庫地까지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67번 버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버스노선 하나를 보고 市民은 주거환경이라든가 또 애들 등하교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버스회사의 횡포도 市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고 또 市 公務員은 의례적으로 행정지도업무만 하는 이러한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바로 찾아가서 원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새 江邊北路에 보면 防音壁 설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음벽을 보면 역시 소음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소음도가 江邊北路가 옛날에는 차선이 좁아서 차가 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선이 편도 5차선으로 넓어졌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차가 아주 고속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강변북로 또 올림픽대로 부근 이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방음벽을 대단히 필요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변 新紫初等學校 앞에 방음벽이 약 180m 또 老遊洞에 120m, 저는 행정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永東大橋이고 이쪽이 蠶室大橋라면 이 중간에 조금씩, 이것이 약 1.8km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 180m, 120m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방음효과가 있습니까?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서 住民의 民願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태로 항상 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역에서 怨聲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울터미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서울터미널은 212대의 버스를 세우는 것으로 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날 갑작스레 馬場洞 시외버스가 전부가 다 동서울터미널로 왔습니다. 이래서 이쪽에는 버스가 약 500여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온통 그 주변에는 도로변에 버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이 버스는 경유를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공해,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수주 전에 우리 本會議場에서 國家委任事務에 대해서는 豫算編成을 하지 않기로 本議員이 제안설명을 드렸고 또 本會議에서 통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教育廳 예산과 또 風納土城 복원문제라든가 警察廳 支援 예산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식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문제로 인해서 本會議에서 분명히 통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市長님의 확실한 소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내년도에 가서 이 예산을 또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市長님의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文化教育委員會 所屬 林靜枝 議員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靜枝 議員; 존경하는 市議會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趙淳 市長과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民主黨 所屬 文化教育委員 林靜枝 議員입니다.

제4대 市議會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4회 定期會에 여러분 앞에서 市政質問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

라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市政質問에 議員 여러분의 노고가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市民들에게 삶의 보탬이 되어 자랑스런 議員이 되고 집행부의 정직하고 성실한 행정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부디 미흡하나마 저의 市政質問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좋은 정책을 펴서 서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와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천백만 서울市民에 좋은 소식 전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은 敬天思想이 있어 하늘을 두려워하여 나라 일을 보는 사람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을 배신하면 하늘은 그를 버린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고위 공직자들이 市民을 배신하여 줄줄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 모두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나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인간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教育行政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마약, 본드흡입, 에이즈 감염 확산, 성폭행, 학원폭행, 안전사고로 인한 청소년 가출 및 비행, 자살 등 각종 청소년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위에 의논할 사람이 있으면 70 내지 80%는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保健 教科目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장 발달 단계에 맞도록 당면한 건강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학생의 건강관리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專門教師에 의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교

과목입니다. 학교생활에서 담임선생님처럼 상담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미 英國과 美國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國民의 건강 토대 마련은 물론 만연하는 청소년 및 사회건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보건 교과목에서 오래 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 때 건강이 중요해졌고 사회문제는 건강문제가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보건 교과목의 중요 교육내용은 건강의 이해, 신체구조와 성장의 발달, 남녀평등사상, 성교육, 정신건강 등 일상 건강생활입니다.

이와 같이 保健教育은 중요과목으로 유치원부터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할 과정이라고 本議員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教育監의 견해와 구체적인 보건교육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급식에서 정부미 사용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서울市長 그리고 教育監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本議員이 작년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바 있었고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에서 95년, 96년 정부미 소비량 및 금액은 95년도는 414만kg에 31억 2,000만원, 96년도는 479만kg에 37억 4,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정부미와 일반미의 1일 1인 소비량과 금액은 정부미는 85g으로 66원, 일반미는 80g으로 176원입니다.

작년에도 本議員이 좋은 쌀과 나쁜 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정부에서 수매한 양곡은 도정공장이 없으므로 7분도미인 현미로 서울市內 6개 창고에서 보관 관리 후 1개

월 주기로 2차 도정하여 급식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미는 학교급식, 군부대, 교도소, 긴급구호용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인이 정부미를 사용할망정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교 급식에 정부미를 사용하는 것은 인도적, 교육학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市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淳 市長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급식학교 쌀 구매절차는 신청학교에서 서울시 農水産流通課의 표를 받아서 서울은행에 돈을 내면 다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쌀을 공급받습니다. 敎育監도 정부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1일 1,115원은 적당한 값이라고 보는지, 또 학교급식에 비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학교 쌀 문제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미는 한 말에 5,200원으로 떡집에서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30~4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정부미 판매 때문에 서울시 초등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편식을 막고 따뜻한 밥을 공급하므로 건강을 위한 목적인데 맛있는 밥을 먹어야 하는 고통 외에 밥과 김치를 싫어하고 빵과 고기를, 그리고 피자에 익숙해져서 음식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통음식이 세계에서 건강에 가장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우리것에 익숙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本議員은 학교급식의 쌀문제는 학교재량에 말

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市長, 그리고 敎育監께서는 이를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 96년 상·하반기 교수 신규임용 50여 명 중 단 1명만의 여교수가 채용됐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은 서울시 민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서울시립대학입니다.

서울의 인구 천백만 중 여성은 49.7%인 543만여 명입니다. 서울시립대학의 남녀 학생수 비율을 보면 5,212명 중 72%가 남학생이고 28%가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 전교생의 약 1/3입니다. 그리고 남녀 교수비율은 96년 12월 현재 265명 중 255명이 남성 교수님이시고 10명이 여성 교수님이십니다. %는 96 대 4%입니다.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교수 채용 결과는 남녀 교수채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여성 30% 확보를 목표로 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趙淳 市長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40명의 교수를 임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딸의 짐이 더 크다고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바,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은 알아도 아는 체를 다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요, 오로지 봉사와 헌신만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는 것을 다 아는 체 해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봉사와 헌신으로 주변일만 맡아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맡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애국이요,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도 공인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여성은 이등국민이어야 합니까? 고학력 여성인력을 여하히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선진국 진입이 늦춰질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서울市廳의 副市長 3명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여성으로 임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또 여성은 家庭福祉局長 외에는 다른 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시는지요? 여성이 交通局長이나 下水局長을 맡았다면 비리에 휘말리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趙淳 市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변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한국사람들의 사기로 네 집 건너 한 집이 피해를 입어 조선족 전체가 시름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서울市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묻고 싶습니다.

시립대학도 조선족 교포 젊은이에게 입학할 기회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 5 내지 10명에게 배려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서울特別市 여학생생활교육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市 여학생생활교육원은 한국여성으로서 덕성과 지혜를 갖춰 가정과 사회생활을 화목하게 영위하는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생활교육원입니다. 지난 84년 한국어린이육성회 소유 재산인 이순자 씨 소유 생활관을 대여받아 여학생생활교육원으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98년 2월 28일 무상사용 계약기간 만료로 시설 반환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은 2%입니다. 법정고용의 의무인원은 535명 중 현재 고용인원은 498명입니다. 2%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5개 지구 저밀도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숨막히는 초과밀도시로 만들어 서울을 파괴하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趙淳市長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趙淳市長은 이 계획을 백지로 돌리고 백년대계를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쾌적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 서울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서울을 아주 망해 놓으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30여년 전 런던에서 하루에 2·3,000명씩, 그러다가 5,000여 명씩 죽어가니까 급히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공해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환경문제 해결로 쾌적한 런던市를 다시 찾은 것을 趙淳市長은 아시는지요? 자동차가 많아서, 집이 많아서, 고층아파트 때문에 경관을 해치고 점점 서울이 삭막해지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서울의 관광객이 점점 줄어들어 관광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겨울철새들도 왔다가 하루만에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살자 수가 세계에서 두번째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연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연에서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어느 집단이익에 치우쳐서둘러 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000년대의 서울, 미래의 서울을 생각하는 것이 첫째 계획이고 그 다음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갈팡질팡 흔들흔들 하지 말고 차분히 10년, 20년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줄 압니다. 바느질을 할 때 마름질을 서둘러 가위질부터 하면 십중팔구 실패합니다. 2000년에는 서울市 인구가 2,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5층은 절대 안 됩니

다.

서울市 재건축 아파트 가구수 증가는 95년 5월말 현재 4만여 가구에서 96년 10월말 현재 9만여 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내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도시기능이 마비되면 우리 모두가 파멸하는 공동 피해자가 됩니다. 낡은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 당연하나 앞으로는 헐어낼 면적과 모양 그대로 다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趙淳 市長은 임기의 절반이 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남산 1·3호터널 통행혼잡료 징수는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趙淳 市長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버스전용도로에는 빈 버스만이 움직이고 있고 택시, 자가용차는 주차장같이 도로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불평의 소리가 여기 저기 가득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5분, 10분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자연히 택시나 자가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좌석버스 800원이면 200원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단거리일 경우 5분, 10분 기다리느니 택시를 타게 됩니다.

첫째, 버스 시차제를 좁히고 둘째, 버스요금을 내리고 셋째, 버스전용차선을 러시아워때만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차선제로 실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서민층 10% 정도와 버스업자에게 90% 이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趙淳 市長의 획기적 대책을 촉구하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都市整備委員會 소속 白懿宗 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懿宗 議員;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議會를 선배·文一權 議長님,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趙淳 市長님, 劉仁鍾 教育監님,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한국당 소속 麻浦甲 제1선거구 白懿宗 議員입니다.

제4대 市議會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14회 定期會 마지막 시정질의를 하게 되는 本議員의 심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흔히들 서울시는 복마전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시 주인인 시민을 바라보지 않고 복지부동과 행정편의주의를 내세우며 자리유지에만 연연하는 것을 두고 복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地方自治가 정착되어 가기 위해 민선시장을 선출한다 하여 천백만 시민은 포청천 趙淳 候補라면 서울시 모든 분야에서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고 썩어빠진 것을 과감히 도려내어 치료하고, 낡은 것 역시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여 깨끗하고 밝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 믿고 전폭적으로 市長의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터져나오는 사건 사고를 보는 시민들은 실망과 기대가 여러 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온통 야단들입니다. 市長께서 취임 직전에는 온통 장안이 터지고 무너지고 끊어지는 온갖 재난들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줄을 잇더니 취임이후에는 천백만 시민을 담보로 하여 인격과 양심을 파는 비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비리, 세무비리, 버스노선비리, 하수도 공사비리, 바로 그것들입니다. 또 북한의 미그기가 내려와도 낮잠만 자는 끔찍스러운 먹통 경보기가 있는가 하면, 바로 어제는 엄동설한에 영하의 날씨에 예고도 없이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4천여 세대 수만명이 추위에 밤을 지새우는가 하면, 또 어제 역시 아파트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밤새 이삿짐을 싸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온갖 사건 사고 비리들이 장안을 뒤흔들어 천백만 시민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방대한 市 업무이기에 市長님이나 教育監님 혼자로서는 일하기가 어려운 것도 本議員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선시장이 민선시장을 나무라겠습니까, 민선시장이 관선시장을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관선시장 때에는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민선시장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이 끝나니 세상 참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 같으면 市長이 세 번, 네 번 바뀌었을 것이라는 어느 택시기사의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였습니다.

本議員의 생각으로도 민선시장과 관선시장과의 다른 점은 바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느냐 자리에 연연하느냐 하는 것만이 대표적인 차이점이라 느껴지는데 민선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시민의 의견이나 인격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잘못된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이 司法府의 최종판결에 따라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서울시만은 유독 司法府 판결까지도 저버리는 서울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瑞草區 瑞草洞 산 160-51호 임야 7,200m² 일대에 대하여 서울시가 79년 7월 建設部 승인을 받아 일대를 서초근린공원 용지로 지적고시하는 과정에서 瑞草洞 산 160-51 7,200m²를 공원용지에서 제외시켰다가 85년 지적선을 잘못 그렸다고 하며 일제 건축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주측은 이같은 행위가 재산상의 침해라며 89년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高法에 도시계획선 지적고시 등 처분무효소송을 제기, 3년간 줄다리기를 끝에 92년 3월 문제의 땅이 당초 공원용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市는 또 이에 불복해 大法院에 上告하였으나 93년 2월 역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市는 司法府의 결정을 무시하고, 79년 지적고시 도면은 1/2000 공원 외부 환지도와 1/3000 임야도를 동일 축척으로 접합해 지적선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지적과 지형이 어긋나게 잘못 그려진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성급히 부랴부랴 거쳐야 하는 市議

會의 의견청취와 都市計劃委員會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원용지로 묶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땅을 공원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직접 고시도면을 불법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불법 조작을 하기 위해 두 달간 꼬박 밤을 새웠다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서울시 자체감사에서도 이같은 불법지적고시도면 조작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문제삼을 경우 관련공무원 상당수가 징계당할 것을 우려, 은폐하였으며 재판부의 지시에 의거, 문제의 땅을 측량한 大韓地籍公社 안상학 소장에게 市議會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력한 바도 있습니다. 이 건은 大韓地籍公社 측량기사인 안상학씨 본인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런 새로운 불법공원용지 지정에 대해 토지소유주와 또다시 소송이 시작되었으며 이 소송 또한 95년 고법 서울시 패소, 96년 3월 대법 서울시가 패소하였으며, 市는 이러한 司法府의 판단을 다시 무시하면서 이번에는 적법절차를 밟는다는 미명아래 공원용지로 다시 추가지정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저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심의를 하고 있고 都市整備 同僚委員들도 대단히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 서초근린공원을 지정할 때 瑞草洞 160-51호 7,200m²가 제외된 총 60만 2,100m²가 지정되었으며, 만약 당초 160-51호 7,200m²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지정 총면적은 60만 2,100m²가 아니라 이보다 많은 60만 9,300m²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성의 잘못을 떠나 서울시가 계획했던 총

면적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잘못 그려졌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이 과정에서 지적도를 조작하여 재판을 했으며 이러한 조작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서울시가 高等法院, 大法院 2차에 걸쳐 패소한 사실입니다. 이 땅은 서울시가 그래도 억울했던지 7,400만원의 혈세를 들여 외부용역을 주고 기계측량을 하여 주거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역시 7,400만원 들인 기계측량도 주거지역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95년 12월말 현재 서울시가 공원으로 결정고시한 1,385km²의 면적 103.4km² 중 공원용지로 묶어놓은 미보상비가 우리 서울시 1년분 예산에 버금가는 7조 5,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市長은 공원용지를 보상대책도 없이 개인의 사유토지를 묶으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천백만 시민한테 제 공한다는 뜻은 대단히 좋고 本議員도 그에 대한 이의는 전혀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해서 개인의 사유토지를 마음대로 市長이 빼앗아서 돈을 언제 준다고 하지도 않고, 얼마 준다고 하지도 않고 묶어놓고 10년, 20년 방치하고 있는 것이 과연 民選時代에 民選市長이 해야 할 일인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또 울고 있는 시민이 있습니다. 廣津區 廣壯洞 381번지 외 13필지 약 1,500평 소유자 홍필훈씨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사건입니다만 이것 또한 大法院에서 승소하였으나 市에서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하루에 500만원씩 소유주에 지불하라고 판결이 난 사항

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으로 소송 제기되는 시민들이 앞으로 계속 속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市長께서는 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면 司法府의 최종판결인 大法院의 판결까지도 무시하는 市長님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말살하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소송에 패소하여 낭비된 혈세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市の 공신력의 실추를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불법도면을 조작한 공무원은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꼭 두 달간 고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1/1200 도시계획서를 무시하고 법으로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1/3000 도시계획으로 인용을 해서 공원용지로 묶어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대한지적공사 안상학 중부출장소 소장은 말합니다. 재판부에 정당한 측량을 해 주었더니 왜 그렇게 市가 불리하게 측량을 해 주느냐고, 인사조치하겠다, 江原道로 몰아내겠다, 이런 공갈협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그 소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 사건이 市가 잘 했는지, 요즘 이기주의가 팽배한 소유주가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그래서 소유주, 서울市 關係公務員, 대한지적공사 안상학 소장, 이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 사무장을 다 만나 봤습니다. 절대로 市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상학 지적공사 소장한테 말로 물었더니 너무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또 그분이 변명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내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역시 서면으로도 마찬가지로 市가 잘못했다는 답변을 저한테 줬습니다. 제가 받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재관계류중에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또 소유주가 재판을 해서 그것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또 서울市가 패소한 사실입니다. 공용청사는 1,000평이고 1만평이고 넓은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막 풀어줬습니다, 말하자면 정보사 땅이라든가 대법원 서초동공원이라든가. 그런데 개인의 조그마한 땅은 왜 자꾸만 뺏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동안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아직도 보상을 못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서면으로 市長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소유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원이 있다 할지라도 사전에 보상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장기미집행 시설의 규모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결정 전에 계약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市長님이 지금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이것을 제가 本會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밑에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보고를 하고 市長 답변으로 거짓말 할 수 있다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同僚 都市整備委員會 委員들께서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다섯 차례에 걸쳐 심의를 하고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만 이 건은 市長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울고 있는 시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市長님께서서는 본 건에 대해서 직접 판결문도 읽어보시고 公務員의 이야기, 보고만 듣지 마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량기사 불러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그야말로 울고 있는 시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本議員도 여러 방면으로 과연 이기주의가 팽배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절대로 본 건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허위로 작성한 擔當公務員 또는 허위로 보고한 公務員은 엄중하게 문책해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관 방종한 불법건축물 6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동 9,124m² 2,740평입니다. 서울시 蘆原區 孔陵洞 26-21호 삼육대학교입니다. 개발요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내에서는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무단증축했으며, 더욱이 증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고 불법건축물을 준공까지 한 사실 등 모든 建築法을 위반하였으나 關聯公務員, 설계·감리·시공회사 등 책임을 물은바, 전혀 없는 무정부적인 사안을 정당화 합법화하기 위해 뒤늦게 형질변경 편법을 자행하는 것이며, 이런 행위는 고위층이나 관련자들의 부정행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신축 및 무단증축한 사실입니다. 6개동에 9,124m², 평수로는 2,730평입니다. 또 증축허가를 받아서 증축을 하지 않고 신축한 사실입니다. 1,567m² 450평, 불법건축물을 준공한 사실입니다. 3개동입니다.

6,906m² 2,093평, 미준공건물에 사전입주하여 3개동이 2,217m² 637평입니다.

이 내용을 직무유기 사항별로 本議員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關係公務員, 設計監理者, 施工者 등 책임자 문책이 전혀 없었고 매년 분기별 실시하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한 항공촬영에 역시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 집의 옥상에 단 1평, 2평만 텐트를 쳐봐도 항측에 나타나서 보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즉각 때려부수고 강제이행금 몇 백만원, 몇 십만원씩 물리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평이나 되는 이 건물이 항측에 나타난 사실이 없고 한번도 단속해 본 사실이 없다는 얘기인가, 본 건에 대하여 監査해 본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불법행위에 대해 뒤늦게 1994년 1월 14일 약속기소로 벌금 50만원을 부과토록 한 것이 일반시민과의 형평이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이 발생한 이유를 물은바, 相關공무원의 답변인즉 대단히 가증스럽습니다. 학교시설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과 인접해 붙어있어서 경계의 울타리나 경계선의 표시가 없어서 불법건물을 거기다 지은 것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뼘만 침범을 해도 잘못했다고 때려부수고 이런 판에 3,000평이나 되는 건물이 경계선이 없어서 불법건물 발생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市長님, 이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러한 불법은 市當局에서 묵인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監査하시어 잘못된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 주시고 학교법인 시설인 만큼 이미 지어진 건물을 제가 철거하라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뒤따릅니

다. 이왕 지어졌으니, 또 비영리단체인 학교시설이니 학업에는 지장없이 이용하도록 이제는 각별히 배려를 해 주기 바라고, 잘못된 공무원, 거짓말하는 공무원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문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질문 몇 가지 드렸습시다만 솔직히 조사해서 이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 주시고, 오늘 저의 질의가 제14회 定期會 마지막이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文一權 議長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과없이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변변치 않은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사당 안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늦은 시각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議長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保健社會委員會 所屬 鄭善順 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善順 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趙淳 市長과 教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保健社會委員會 所屬 鄭善順 議員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서울市政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니다.

본의원은 교통, 사회복지, 환경분야에 있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行政은 전국 자치단체 표본이 되고 있으며 中央政府의 정책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趙淳 市長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처럼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서울시를 주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은 점을 인식하시고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交通問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마처럼 얽힌 서울시 交通問題를 해결하는데 趙淳 市長님이 밝히신 대로 왕도는 없을 것입니다. 도로, 지하철 등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은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길이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 政策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편안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지하철은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74년에 개통한 지하철 1호선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 地下鐵公社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1기 지하철 1~4호선 노선별 만족도에 있어서 4호선이 48.0%로 가장 높고, 3호선이 24.7%, 2호선이 19.5%인데

반해 1호선의 만족도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시설인만큼 시설이나 서비스면에서 다른 노선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지하철 1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地下鐵公社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호선 지하철공사 차량 160량 가운데 60량, 철도청 차량 714량 가운데 123량이 20년이 지난 차량으로 이미 내구 연한이 경과된 차량들입니다. 현재 地下鐵公社와 鐵道廳은 이들 차량을 보수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하철 차량이 노후됨으로 인해 시민들은 소음과 진동, 잦은 고장, 그리고 여름에는 무더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趙淳 市長님, 서울시가 추진하는 승용차 이용억제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쾌적성과 편리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수명이 경과하여 불편하고 지저분한 지하철 1호선 차량은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1급 공무원인 交通管理室長이 버스요금과 관련된 비리사건으로 구속되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民選市長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市長은 사과성명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버스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金東勳 前 서울시 交通管理室長은 버스

조합으로부터 버스요금 인상시기를 앞당겨 주고 노선조정 의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
금까지 상황을 보면 검찰은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市도 금번 버스비리문제는 交通管理室長이 모든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노선조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버스요금 인
상문제에 있어서는 金義在 行政1副市長이 마땅히 책임을 져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義在 行政1副市長은 서울市物價對
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에 따라 서울市 물가대책위원
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7월 1일 버스요금 인상은 금년 4월 18일 金義在
行政1副市長 주재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
니다.

서울市가 제출한 회의록 사본에 의하면 이날 저녁 7시 30분
에 열렸던 이 회의는 金義在 行政1副市長 의도대로 시내버스
요금은 17.6% 인상된 400원으로 하고 이는 7월부터 적용할
것을 결론짓고 순식간에 종결되었습니다. 보도된 대로 財經院
은 원가요인만을 놓고 볼 때 버스요금이 340원에서 400원으
로 17.6%나 오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버
스회사의 인건비가 작년 한 해 동안 11%,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가 4.5% 올랐지만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값
변동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버스요금이 8% 이상 인상되
면 안 된다는 것이 재경원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금인
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물가대책위원회

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 없이 17.6% 인상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회의를 주관한 金義在 行政1副市長에게도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로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해 버스요금 인상이 미친 영향이 460개 품목 가운데 가장 커다란 점을 감안할 때 줄속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한 물가대책위원회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金義在 行政1副市長은 당시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할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알고 있었다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엉터리 버스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데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생각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市長님은 市政運營3個年計劃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복지·의료부문에 대해 81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은 아직까지 서울시 전체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결산과 금번 行政事務監査에서 살펴본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의하면 그나마 각 사업별로 배정된 예산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온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매년 어렵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정된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 행정편의나 主務官廳의 관리 및 운영의 미흡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계속되어 온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전시행정적인 사업을 민선시대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政府의 사회복지는 더 이상 자선이나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行政府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市長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육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95년도 결산에서 거의 5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예산집행 현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맞벌이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 10월 현재 서울市內는 2,721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중 구립시설 421개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2,300개소가 민간보육시설인 것입니다. 80%가 넘는 시설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市의 지원은 고작해야 시설규모에 따라서 연간 80%에서 300만원 정도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보육료도 저렴하고 시설이 좋은 구립시설을 선호해 민간시설은 더욱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역사회별로 市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및 직장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발전을 강구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市長은 이제까지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지도·관리를 해 왔으며, 보육시설의 질적, 양적 확대와 예산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사업은 保健福祉部에서 제시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지방자치시대의 장점이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市の 규모와 특성상 생계비나 교육비 등 여러 가지 지표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保健福祉部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서울시도 조사가 되겠지만 보다 실질적인 서울市民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울市民의 최저생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서울市民의 최저생계기준, 최저주거기준, 최저문화기준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칭 서울市民의 최저한의 삶의 질의 기준을 공표하고 이를 향상시켜 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질 것을 제안합니다.

市長은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독자적인 시책추진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오염 정도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친 오존경보발

령, 지하철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의 비산먼지 발생, 지하수 오염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환경적 유해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수는 현재 1만 7,624개이며, 그 숫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정수는 노원구가 1,471개, 강서구 1,349개, 강북구 1,154개 정도이며, 중구가 397개, 종로구가 328개 등 도심지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도 각 區廳 下水課에서 파악된 관정이며,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관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保健環境研究院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폐공으로 인한 관리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지하수 오염은 불가피한 상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하수 오염원은 수거식 정화조로 인한 지하수 오염, 주유소 687개, 세탁소 8,138개, 하루에 10만 1,078톤씩 발생하는 산업폐수와 농경지, 임야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이 대부분입니다.

市長은 더 이상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와 세탁소 등 각종 오염배출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상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인 은평구의 경우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곳이 3곳, COD가 기준을 초과한 곳이 2곳,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무려 15곳이나 됩니다. 지하수 수질기준에서 특정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대조동과 수색동, 응암4동에서 0.246ppm으로 생활용수 기준치인 0.03ppm보다 8.2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인 종로구의 경우는 조사지점 110건 중 공업용수 1건을 제외하고는 목욕탕이나 청소용의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5건인 22.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업지역인 구로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휘발성 유기물질과 중금속 등으로 공장의 생산활동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미 서울市的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산성질소는 생활용수 기준치인 20ppm을 넘는 지역이 고척1동, 구로2.4.5동, 구로본동, 오류1동 등 6개 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구로5동과 구로본동은 공업용수 기준치인 40ppm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市長은 지금까지 서울市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남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질의를 마치면서 성의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 여러분, 수고 많

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停會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續開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停會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59分 會議中止)

(15時 24分 繼續開議)

○副議長 李聲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오전 여섯 분 議員의 질문과 어제 네 분 議員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執行部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關係公務員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趙淳 市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趙淳;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 金周喆 議員을 비롯한 여러 議員께서 시정의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과 시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市長이 답변드리고, 소관분야의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副市長과 關係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周喆 議員께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쓰레기물 건조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400톤으로서 이

중 300톤이 배추와 무우 등 채소류의 쓰레기입니다. 그 동안 이들 채소류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기업에서 실험과 검토를 하였으나 수분함량이 92에 달하는 배추 등의 쓰레기로는 사료 생산이 어렵고, 많은 첨가물을 배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金議員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채소류 쓰레기를 화력건조식으로 탈수시키는 건조기를 실험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실험결과 쓰레기량의 87%가 감소되고 침출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최종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며 계속적인 실험을 통해 비용과 효과를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문제는 서울시의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검토결과 건조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亨吉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임기 중간시점에서 市長의 소감과 시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사례, 市와 市議會와의 관계 등에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金議員님께서 시정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형식적인 전시행정 위주라는 비난이 있는데 市長의 소감은 어떠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는, 사실 과거 任命職 市長 시절에는 짧은 임기 동안 임명권자에게 보일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업을 추진한 예가 많았습니다만, 민선 이후에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도시의 정비와 실질적인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십년간 중앙집권시대의 사고에 익숙한 시민들이 시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이후 서울시정은 그 목표와 정책방향, 방법 등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변모하여 과거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이 점차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도로와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데 주력한 교통정책을 이제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는 교통문화 정착으로 전환한 것이라든지, 가용한 토지마다 신규 택지를 조성하던 정책에서 이제는 예산으로 땅을 사서라도 녹지와 공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가 구체적인 정책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마인드가 자치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겠는바, 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성과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기적인 市政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市政運營3個年計劃을 통해 수립한 정책방향을 토대로 꾸준히 그리고 일관성 있게 市政을 수행함으로써 서울을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시켜 나갈 것입니다.

市政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의미는 결국 市政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우선 市政運營3個年計劃을 수립하여 3개년 동안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할 일을 정한 것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 교통, 환경 등 시급한 분야의 인력을 확충한 것이, 그리고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보다 구체적인 경영마인드 도입 사례로는 예산조직을 개편하여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사 特別會計를 일제히 정리하여 통폐합하였으며, 자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대기업 등의 금융전문가들로 자금운용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을 공개채용하여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개선을 이룬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세입을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추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예산수입액을 적정 추계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실제 집행 가능한 액수를 면밀히 심사하여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市와 市議會와의 관계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市政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와 같은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執行部 일부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를 고쳐나가는 데 市長으로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金洪奎 議員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답변드리고 노선조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交通管理室長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과 관련된 비리사건 이후 서울市에서는 노선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타스크포스로 交通管理室 內에 버스개선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앞으로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참여하에 개편안을 만들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중인 446개 노선에 대한 운행거리, 수송인원, 굴곡도 등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버스노선과 관련된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시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시민의견

을 수립한 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자문을 거쳐 노선개편의 원칙을 정하여 이를 토대로 개편시안을 마련하고, 재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노선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권역별 공동배차를 통한 노선의 공동운영이 이루어져야 장거리 굴곡노선 등 불합리한 점이 완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서울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공동차고지를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우선 은평권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두 개 노선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되지 않으려면 버스업체가 대형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버스를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關聯部處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통폐합시에는 인수업체에 대하여 양수자금을 융자하고 세제상 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시민불편이 있는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버스의 공개념을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시내버스 운영의 정상화를 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버스회사가 지정된 버스노선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林靜枝 議員께서 副市長을 여성으로 임용할 의향이 없는지 등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인력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러한 소신하에 지금까지 여성인력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왔다고 생각합니다.

市 예산으로 女性發展基金을 조성하고 있고 종전의 婦女福祉館을 女性發展센터로 개칭하고, 기능도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위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기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내년엔 여성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여성프라자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市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도 地方自治團體로서는 최초로 1급 公務員에 해당하는 女性政策補佐官職을 신설하였고, 종전에는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監査擔當官職에 女性公務員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副市長이든 交通局長이든 직위를 가리지 않고 능력과 경륜이 있다면 女性公務員을 임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채용 목표비율 20을 중앙부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2년 앞당겨 98년도까지 이것을 달성함으로써 유능한 여성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힘을 쓸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겸해서 市立大 教授 임용과 관련해서는 1996년 9월 5일 개최된 市立大 學校 運營委員會에서 앞으로 교원 신규 임용시에는 20% 정도는 여성교수로 신규 임용할 것을 市立大 學校 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市立大學의 지도 감독권이 教育部로부터 서울市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성교수 비율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정하여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林靜枝 議員께서 이번 江南 5개지구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百年大計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것은 노후된 집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주택공급의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택보급률이 70% 정도에 불과하고 신규 택지를 구하기 어려운 서울의 현실을 감안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라는 측면도 매우 중요한 목적이며, 지금 서울지역에서 무주택 시민을 위해 분양이 어려워지고 있는 아파트의 주종도 바로 재건축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주택수를 지금 그대로 재건축한다면 집값의 상승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교통, 환경 등의 도시 문제와 주택공급량의 확대 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찾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정 출범이후 주택정책은 종전의 물량공급 확대위주 정책으로부터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조성 위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번 강남 5개 지구의 재건축도 그러한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용적률인데 이것을 법에서는 400%까지 허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타 지역 재건축시 330% 내지 400%까지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270%로 대폭 강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건물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세대수의 증가와는 상관없는 건물 배치차원의 문제로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80층짜리 아파트 세 동을 짓느냐 아니면 24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짓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번 재건축 방침을 결정하면서 느낀 것은 法에서 400%까지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을 서울시의 의지만으로 계속 규제하는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이와 같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좀더 확고하게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번 일을 교훈삼아 제반 법령의 개정 등 제도적 개선과 서울시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재건축 원칙을 조속하게 마련함으로써 앞으로의 재건축이 일관된 정책방향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白懿宗 議員께서 민선이후 비리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市長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 하수관 등에 관련하여 비리가 발생하게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민선이후 특별히 과거에 비해 비리와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안전진단과 점검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 발생요인이 대폭 감소되었고 실제로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과거 수십년간의 개발년대를 거치면서 서둘러 건설한 수많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많이 안고 있고, 당산철교, 양화대교 뿐만이 아니라 어제 주민들을 대피시킨 中區의 아파트도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黃鶴洞의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해 붕괴위험 시설로 판정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또한 오늘 2시부터 거기에 안전진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인 자정과

정풍운동을 전개하고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여건 개선 등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비리를 없애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鄭善順 議員께서 사회복지부문 예산의 증액과 효율적인 집행,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제가 답변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市에서는 민선자치 출범이후 시정의 목표를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드는데 두고 복지부문에 대한 시책개발과 투자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정운영3개년계획에서는 98년까지 복지부문의 예산을 시예산의 6%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획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부문의 예산을 금년에 비해 41%나 증액 편성함으로써 시예산의 6.3%를 점유하게 되어 목표를 1년 앞당겨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예산 중 복지예산이 4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큰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과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녀보육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므로 서울市에서는 97년까지 보육 희망아동 전원을 보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운영비지원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95년에는 보육률이 83%였으나 금년 현재는 97.7%까지 향상되었으며 목표로 한 내년까지는 완전보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 민간보육시설 2,253개소에 대해 시설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총 16억 3,800만원의 교구비를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민간보육시설에 입소할 때에는 보육료의 40% 내지 50%를 市費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만으로는 완전보육과 보육수준 향상이 어렵다고 보고 내년부터 지원수준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다시 검토하여 이 계획을 금년 11월 1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민간보육시설에 입소할 때 보육료의 40% 내지 50% 지원하던 것을 전액 市費로 지원하고, 가구평균 소득이 월 220만원에 미달하는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동일시설에 입소할 때에는 그 중 한 자녀의 보육료를 면제하며, 영아나 장애아동을 위한 반을 3개 반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는 시설당 월 2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아동 60인 이하를 보육하는 소규모시설 300여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을 3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씩 총 12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시설개선에 지속적인 투자를 함과 아울러 이제 보육률 100%를 달성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방과후 보육, 토요일전일보육 등 보육내용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仁鍾 教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監 劉仁鍾; 오늘도 교육분야에 대해서 議員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議員님들의 교육에 대한 질의는 우리 서울 교육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방향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실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亨吉 議員과 林靜枝 議員님께서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탈선문제 그리고 그 지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학원폭력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우리 사회의 3대 폭력 중의 하나로 그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 심각한 지경에 와 있음을 우리 教育廳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느끼고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教育廳뿐만 아니라 거국적으로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教育廳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새롭고 과감한 대책을 이미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대책수립의 방향은 지금까지 치료에 급급했던 방향에서 탈피해서 예방차원의 대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대책수립은 이달 안에 완료될 것이며, 대책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지상에 발표하고 여러 議員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탈선과 그 지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탈선방지와 그 지도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학교 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혁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새 물결운동은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충남 보령시에 임해수련장 겸 전천후수련장을 건설하고 있고, 경기도 퇴촌에 제2야영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가평의 수련장을 대폭 증축할 것입니다. 이미 이 수련장 건설을 위한 예산편성도 한 바 있습니다. 수련장 건설뿐만 아니라 그 수련장의 교육프로그램도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성폭행과 성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교육은 순결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순결교육 방법으로는 늘어나는 성폭력이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순결교육 중심의 성교육 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예방과 대책중심의 성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교재편찬에 착수하였고, 그 교재편찬과 더불어 교사훈련도 이미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金亨吉 議員께서 유치원 교육과 교사의 자세변화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유치원 교육은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립 대 공립의 비율은 95 대 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유치원수 1,337개 중에서 공립유치원은 53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金議員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도한 유치원 교육비가 든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教育廳에서는 연차적으로 공립유치원을 늘려 설립함으로써 유치원 교육비를 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사립이 적은 취약지역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문제는 현재 政府와 國會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유치원 교육의 무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政府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그렇게 단축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유치원 취학을 위한 학생들이 전원 취원이 되려면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을 현재와 같은 템포로 유치원을 설립한다면 약 3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자세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議員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교사들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또 그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천직이라는 과거의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고 전문직으로서의 개념마저도 흐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나타났습니다만 바로 노동자라는 개념, 이것과 전문직이라는 개념에서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은 통감하면서 우리 教育廳에서는 이미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의식개혁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해서 교사의 의식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교사의 의식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새해부터는 5대 중

점과제 중의 하나로 교원의 복지정책을 넣어 교원들의 사기를 양양함으로써 그 의식을 바꾸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政務副市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崔洙秉; 政務副市長입니다.

먼저 어제 김장주 議員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議員께서 주신 보충질문의 요지는 20m 미만의 도시계획 도로를 自治區 예산만으로 개설하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市가 정책방향을 바꾸어서 20m 미만 도로도 市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여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金議員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편의향상을 위해서 개설이 필요하지만 自治區의 재정여건으로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20m 미만 도로에 대한 투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 예산편성 과정에서 區廳長님들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현재 市가 투자해야 되는 교통, 도로 관련 재정수요가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기에도 市의 재정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매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잘 아시다시피 우선 시급한 20m 이상 도로건설에 연간 약 6,0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市 재정확충 노력을 해서 市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

이 되고, 20m 이상 도로를 위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金亨吉 議員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議員님께서서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액 8조 6,125억원 중 연말 기준으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은 어느 정도로 추계가 되느냐, 그리고 IMF의 서울시 재정진단 결과는 어떠한가, 매년 증가되는 부채 상환계획은 어떠한가, 그리고 국고지원금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재정운용과 관련되어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財務局長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과 불용액의 추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金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2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고이월액을 예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집중심사분석 등의 실시를 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이 연내에 집행되고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4/4분기의 집중심사분석 결과도 이달 중순경에는 다시 한 번 보고대회를 가지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불용예상액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년의 집행률이라든지 지금 집행진도를 감안하면 약 4,040억원이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 추가징수예상액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약 4,081억원이 나옵니다. 이 2개를 합해서 내년도에 물론 더 늘 가능성

도 있습니다만 純歲計剩餘金이 약 8,000억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월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市長님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내용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연도 내에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소요예산만을 계상을 함으로써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재정진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재정진단은 財政經濟院의 요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14일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자문단을 파견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는 財政經濟院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로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 간의 재정관계 및 지출관리에 대한 진단과 자문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財政經濟院과 우리市 그리고 IMF 간에 대외공표는 안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財政經濟院에서 진단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 서울市가 그 동안 中央政府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부채상환계획 수렴문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말 부채원금 규모는 市 소관이 2조 3,080억원, 投資機關 소관이 2조 6,397억원 등 총 4조 8,777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市에서는 부채상환계획을 기채사업별 차입자금의 상환조건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

영하여 오고 있고 부채규모의 감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규모의 감축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려면 금년도의 2기 地下鐵 건설과 관련해서 94년도에 政府의 公共資金管理基金에서 차입한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악성 부채 6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한 바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쁜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조기상환입니다, 약 1,000억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고지원 확대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地方自治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地方自治團體가 재정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살고 있고 국방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中央政府가 하고 있는 행정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서울市の 현실을 감안할 때 서울市の 재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市로서도 中央政府의 국고지원 확대와 이와 관련된 法令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地方自治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中央政府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市民과 市議會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市에서는 국고지원 확대와 관계법령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市議會와 그리

고 議員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국고보조금 교부내시액은 총 3,86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15억원, 특별회계가 2,846억원입니다. 그 동안 財政經濟院과關係部處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고보조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던 삼풍관계 500억원, 그리고 지원이 종료된 공공임대주택 건설보조 461억원을 제외한 금년도 국고보조금은 3,717억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40억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223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792억원이 1,015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공기 지연으로 금년도에 65억원을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받았습시다만, 이것은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신규로 자원활용시설을 위해서 117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는 늘었습니다만,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에 25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地下鐵 공기조정으로 약 340억원이 줄어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79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의 증액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議員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行政1副市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行政1副市長 金義在입니다.

먼저 金亨吉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都市鐵道公社의 인사와 관련된 질문과 그 다음에 下水局長 파견에 관한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鐵道公社의 감사가 외부에서 채용된 것이 사실이고 그분은 군출신입니다. 군출신 중에서 두 분이 추천이 됐는데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기획계통에 있는 분이고 한 분은 기술계통을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서는 우리 金議員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사한 이런 분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交通委員會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장 1시간 40분 동안 남김없고 숨김없이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박감사를 제가 불러서 앞으로 議員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감사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갖추는 그런 자세를 보여달라 하는 주의를 환기한 바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前 下水局長 崔慶竣씨가 都市鐵道公社 기술이사로 임명된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崔慶竣 前 下水局長은 下水局에서 2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지금 온 崔在範 下水局長은 都市鐵道公社에 1년 동안 기술이사로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파견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복귀를 희망을 했고 저희도 下水局長이 2년 동안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맞바꾸어 주는 것이 심기일전을 하고 보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바꾸어주었는데 나중에 간 다음에 前 下水局長 崔慶竣씨가 下水局長 재직시에 있었던 문제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林靜枝 議員님께서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남산1호·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로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시다만,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비용을 분담시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사회적인 형평을 기할 것이 아니냐는 원칙에 의해서 처음 시작한 대단히 우리 수요관리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승용차, 특히 한 사람이 한 차를 타고 오는 이런 차를 줄이고, 승용차를 함께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문화를 전반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南山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효과를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는 것은 조금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3주일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南山1.3호터널의 교통량은 23%에서 26% 정도 감소를 했고, 통행속도는 약 72% 정도가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회도로의 경우에는 통행량은 5.4%가 증가하였으나 통행속도는 오히려 18%가 증가한 그런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라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이용승객이 평일 평균 약 3.6%가 증가를 하였고, 1호선과 3호터널을 통과하는 버스의 이용승객은 평일에 평균 2.3%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3인 이상 자가용 함께 타기 이용도 76%가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교통수단 이용행태로 변화되고 있어 긍정적

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우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효과는 전적으로 市民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은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市民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려는 우리 市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市에서도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는 市民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증차하고 버스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지난번 신설된 버스개선기획단에 근본적인 버스서비스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해서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확대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 관계와 관련된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제일 먼저 버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사를 할 때 89개 버스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17개 업체에 대해서 1차로 수사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17개 버스회사, 89개 중에서 제일 형편이 좋은 17개 회사 중에서도 13개 회사는 흑자가 났고, 4개 회사는 적자가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交通管理室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체의 그 동안 누적적자는 약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속이 됐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버스가 흑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는 문제가 아니고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업계에서는 수입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刑事法에 걸려서 구속이 된 것이고, 公務員은 交通行政과 관련해서 수뢰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사항입니다.

사고 발생해서 우리 擔當公務員이 기소된 이후에 제가 이 문제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에게 우리 擔當局長과 課長을 과견을 했습니다. 과견해서 수사과정에서 과연 버스요금이 부당하게 인상됐다는 그런 내용의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檢察에서는 그 문제는 자기들이 검토하기 어려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보냈습니다. 두번째도 그런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3월 20일과 7월15일에 두번에 의해서 버스요금이 290원에서 310원으로, 31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돼서 작년에 60원이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버스요금 인상을 하면서 업계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생산성본부에다 자기들 경영실태를 분석해서 버스요금 인상의 자료를 하기 위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400원으로 올린 버스요금을 500원 정도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는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市政開發研究院에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交通管理室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안으로 올린 것이 1안으로 390원, 2안으로 410원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조정해서 400원으로 조정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회 회의록을 보시고 순간적으로 결정했다고 그러시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는 우리 公務員이

제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섯 사람이 있고, 나머지 조관수, 오연천, 강응선, 박영호, 정광모, 민중기, 신찬수 이렇게 경제학이나 경영학, 회계학 등을 하는 회계사 등 專門家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정광모씨와 같은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여기에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면서 결국 400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실행되면서 업계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市民들이 노선에서 버스를 한번만 결행하고, 10분만에 오는 버스가 20분에 온다든지, 결행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얼마나 이 추운 날씨에 불편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저희가 8,725대의 버스가 있어서 한 대당 2.44인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에 의하면 약 2만 1,290명의 인력의 버스기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1만 7,680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3,610명이 결원이 되어서 약 17.3%의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인 가족생계비가 약 170만원 정도인데 이 사람들의 평균임금이 158만 4,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초에 노사분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노사분규를 해결하면서 버스가 파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아주 위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6년, 97년, 98년 3개년에 의해서 10%씩 임금을 인상해 줘서 98년에 98년 기준으로 5인 가족 평균기준생계비를 유지해 준다는 이러한 합의를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당장 4월에 버스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崔秉烈 市長님

이 계실 때 두번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버스요금을 올리지 못한다는 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市長님에게 前任 市長님의 약속도 市民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에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선 인상하는 시기를 하반기 7월 1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업계를 대변해서 올렸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버스업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고가 생긴 뒤에 아까 議員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하를 한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고가 생긴 뒤에 누구도 버스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문보도에 인하할 것 같다는 보도가 있는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버스요금을 인하하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인상할 때 그냥 인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와서 얘기할 때도 과연 이 인상률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檢察에 가서 혹시라도 檢察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부당성이 나타난 점이 있느냐 하는 점을 제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檢察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확실히 알기 어렵다 하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버스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올린 버스요금이 과연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委員長은 안경상씨, 공인회계사인 김행선씨, 한국일보 논설위원인 이행원씨, 홍익대학교 교통전문가인 이인원 교수, 변호사인 고승덕씨, 또 소비자보호단체인 유진희씨,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들입니다. 사랑의 차 함께 타기 운동본부장 한충희씨, 한국교통시민협의회장 김기홍씨,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연구소장 박동환씨, 이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요금이 부당인상되었다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상당한 분란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조차도 지금 와서 버스요금을 함부로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지금 박동환씨가 제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씨, 또 교통장애인협회 회장 임통일씨, 이런 분들이 전부 멤버가 되어서 버스요금 인상이 과연 정당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공인회계사 법인을 지정해서 그 회계사에서 이분들한테 자세한 버스업계의 수익금 관리와 지출관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분들한테 보고하면서 상의해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에서는 약 280명이 동원이 되어서 버스에서 그 수익금을 횡령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누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암암리에 전시간 샘플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관리, 지출의 관

리, 이 두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서 과연 과거에 우리가 올린 요금이 부당하냐 정당하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수익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모든 앞으로 교통행정의 자료를 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회의에, 이 모임에 市議會 議員님들의 참여를 저희가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인하에 대해서 어떤 분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저희한테 얘기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鄭善順 議員님께서 최저한의 삶의 질의 기준 제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서울市民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최저생계기준, 최저주거기준, 최저문화기준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칭 서울市民의 최저한의 삶의 질의 기준 제정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政府와는 독자적인 시책추진계획을 수립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민선자치시대의 시정목표를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로 정하고 그 동안에 양적 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市民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市民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 市에 맞는 독자적인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기준, 주거수준, 문화수준 등 시민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시민의 삶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다양하고 깊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市에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먼저 사회복지, 주거, 문화 등 분야별로 광범위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市民의 사회복지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特別市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개발 학술용역을 96년 5월부터 97년 7월까지 서울시 市政開發研究院에 용역계약하고 조사 연구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로 서울시의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의 인구와 복지욕구 파악 등 사회복지 기초자료가 확보되고, 기초자료가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모든 市民에게 공개되면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사회복지 행정을 전면 검토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할 것이며, 앞으로 서울시에는 한층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제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체공학적 기준과 건축가능한 최소면적을 고려해서 가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한 최저주거기준과 바람직한 기준면적을 결정하고, 기준이하 가구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市에서는 기준 이하 가구수와 가구원의 유형 등을 실제로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이하 가구 해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96년 중 주민의 실제 주거현황을 조사하여 최저주거기준 설정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市民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행 市民의 문화수준을 측정하고 문화적 정책을 평가하며 시민 기대치를 개량화하기 위한 문화지표 개발이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지표가 개발이 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문화행정의 지표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주거, 문화 등 분야별로 기준설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先進國과 같이 사회복지지표를 포괄적으로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 생활의 여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 지표체계를 체계화하고 개발하는 용역을 98년까지는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는 체계화된 서울시 사회복지지표체계에 의해서 매년 복지지표를 발표하고 중장기적으로 國內 統計機關의 자료협조 및 유대를 강화하고 외국 도시의 통계자료를 조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선진화된 복지지표를 매년 밝히고, 또 先進國과도 지표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行政2副市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2副市長 洪淳佶; 行政2副市長 洪淳佶입니다.

먼저 金周喆 議員님께서 지적공부가 일정시대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80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소송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또 민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적공부는 일제가 1910년대에 토지와 임야 조사사업으로 만든 지적측량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의 생활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고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시 토지조사사업의 기술수준과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아서

지적도면을 80여년간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 도면의 신축이 발생하였고, 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과도한 토지이동의 발생 등으로 인해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현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원도 또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국의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엉켜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되기 쉽고, 또 사업비 또한 엄청나게 많고 地方自治團體 능력으로 가지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中央政府에서는 地籍再調査法을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96년 9월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법령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地籍 不附屬의 문제점은 地籍再調査事業이 시행되면 당연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金亨吉 議員님께서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과연 팔당상수원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자신있게 수돗물을 마시기를 권장하느냐, 권장한다고 하면 그 근거가 무엇이나, 그리고 시내 주요지점에 수질검사결과를 생수와 대비해서 전광판으로 광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市 수돗물 수질은 국내 수질기준은 물론 WHO나 선진국의 수질기준에도 아주 적합한 안전한 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原水의 수질현황을 보고드리면, 팔당이 BOD 기준으로 해서 1.3ppm이고, 잠실수중보 상류가 2.4ppm으로 2급수 수준입니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原水에서부터 정수과정, 공급과정, 가정의 수도전까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수돗물은 믿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안전한 물이란 것을 다짐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원 주변 수질관리를 위해서 43개소 지점에서 비소, 아연, 망간 등 26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5개 취수장에서도 폐놀 등 6개 항목을 24시간 연속 자동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정에서도 탁도, 맛, 경도 등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43개와 서울시에서 자체 설정한 검사항목 10개를 검사하고 있으나 농약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고 기타 항목도 기준치의 1/5 내지 1/10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수질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교수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돗물안전진단위원회에서 매월 자체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수돗물은 물론이고 지하수, 약수, 정수기 물까지도 시민과 함께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검사결과를 전광판에 광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수돗물 홍보에 대해서는 시내 주요지점 14개소의 전광판에 하루에 120회 이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제시하신 수질검사결과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企劃管理室長 都明正입니다.

먼저 金洪奎 議員께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예산부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議員께서 양해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林靜枝 議員께서 조선족 교포의 시립대학교 입학특혜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포의 특례입학기준은 教育法施行令의 규정에 따라서 대학별로 입학정원의 2이내 또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내의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있고, 시립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대학교에서도 97학년도 특례입학자 중에서 중국교포자녀 1명을 입학편의 제공을 위해서 면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류전형으로 선발해서 본인에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 제도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중국교포의 입학에 긍정적으로 사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는 현재 장학금 제도가 성적우수장학금, 총장장학금, 근로자장학금 등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자격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 중국교포라는 입장에서 장학금을 주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地域經濟局 所管을 擔當 局長이 유고로 참석 못했

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洪奎 議員께서 농수산물 유통합리화와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現 公社를 일본의 제도처럼 市 傘下의 直營企業化함으로써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거나 또 대만처럼 경매사를 공영화함으로써 도매법인과 관리공사를 통합 일원화하는 문제, 그리고 가락동 도매시장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대체시장을 개발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합리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있게 연구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체제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치와 관리는 地方自治團體의 주관으로 하고, 농수산물의 수집, 운반, 가격형성 등 유통은 민간법인이 담당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가락동 도매시장에는 시장을 관리하는 우리 市 傘下의 公社와 또 농수산물을 수집·경매하는 등 유통을 담당하는 10개의 도매시장법인이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서울市 傘下 公社로 되어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市直營企業化하는 문제는 市場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권력 발동 등이 가능한 장점은 있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으로 인한 경영의 경직성과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매법인과 관리공사를 통합 일원화해서 공공부문에서 유통기능까지 담당하는 문제는 경매의 공정성 확보와 상장수수료 인하 등의 장점은 있으나 민간부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유통을 공공부문이 담당함으로써 경제원리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면에서 약화가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도매법인들을 처리하는 데도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문제는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근본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먼저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市 입장에서도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락시장의 대체시장을 개발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시다만 우리 市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권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동북권역의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내년 중에 개설되며, 서남권역의 도매시장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環境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室長 卓秉伍; 環境管理室長입니다.

金周喆 議員님과 金亨吉 議員님 그리고 鄭善順 議員님께서 아홉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周喆 議員님께서 공원정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서울대공원내의 코끼리열차, 킹콩버스 운영을 서울랜드와 수의계약한 사유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랜드와 수의계약한 사유는 코끼리열차는 83년 9월 19

일 우리 市 방침에 따라 놀이시설과 함께 투자 운영하도록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계약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코끼리열차 관리기간도 놀이 시설의 관리기간인 2004년까지입니다. 현재로써는 공개입찰방식 등은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킹콩버스는 92년초 서울대공원 내에 코끼리열차 기존 운행 구간에 투입해서 운영하도록 서울랜드측에 권장하여 관리 위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코끼리열차 관리기간과 킹콩버스 운행기간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의 경영개선에 관하여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위탁시설 현황은 총 189개소로 이 중 우리 市가 직접관리하는 것은 공원 내에 106개소가 있습니다. 國家機關이나 社會團體 등에 위탁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 민간인에게 위탁한 시설은 83개소이며, 이 중 62개소가 일반경쟁입찰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21개소는 寄附採納 期間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자로 투자한 공원시설은 무상 운영기간이 끝나는 대로 일반경쟁입찰로 위탁관리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일반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金亨吉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서는 서울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서울시 5만 4,000여 명의 公務員부터 의식개혁운동인 청소, 청결, 정리, 정돈 습관화의 5S운동을 캠페인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市에서는 公務員들이 솔선수범하는 환경보전운동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현재에도 우리市 公務員들이 솔선수범하는 실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전활동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서 議員님께서 제시하신 청소, 청결, 정리, 정돈, 습관화 등 주요 실천과제로 하는 5S운동을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議員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鄭善順 議員님께서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해주셨고, 난지도 매립지 가스문제와 江西區, 陽川區 환경오염문제, 건설폐기물관리, 쓰레기분리 정착 등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유소와 세탁소 등 각종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현재 80여 개소가 있으며 세탁소는 8,104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주유소는 유류 유출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유류저장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 및 하수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탁소는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해서 규제대상위반시설로 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

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폐유기용재는 한국세탁업중앙회에서 수거해서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지하수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난지도 매립 가스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공사를 위하여 금년 9월 안정화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20일 공사입찰을 하여 금년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립가스의 측정 관리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매립가스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측정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정화 공사 기간 중에는 우리市 保健環境研究院으로부터 현재 금년 10월부터 97년 5월까지 예비조사를 철저히 거치고 97년 6월부터는 계절별로 본격적인 측정 조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정화 공사 이후에는 매립가스의 매립지 외부로 이동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가스추출정 가동 후 최초 2년간은 분기별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씩 주기적으로 계속 측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측정항목에 중금속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環境政策基本法에 설정된 환경기준 항목만 현재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각종 중금속 농도까지 측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江西區 禾谷洞 지역의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데 높은 원인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산화질소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 원인은 禾谷洞 지역은 공

장 등이 밀집된 仁川, 富川 지역과 근접지에 있고, 측정 지역인 禾谷 3洞 동사무소 옥상이 강서로, 화곡로, 공항로, 남부순환도로 등 대도로변에 인접되어 있어서 많은 차량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 주위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오염물질이 바로 확산되지 못하고 정체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으며, 議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에는 김포공항의 비행기가 이·착륙시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영향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이산화질소의 배출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인근 지역 4개 대도로에 대해서는 통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공항 비행기 이·착륙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大氣環境保全法上에는 비행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環境部에 건의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관리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環境部에서 나오는 오염배출량을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陽川區 新月洞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피해가 심각한데 그 동안에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사항은 94년 11월부터 저희들이 建設交通部에 피해대책을 건의를 해서 95년 7월부터 財産稅 減免을 제외한 지원대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航空法施行規則이 개정되었습니다. 建設交通部에서는 9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

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金浦國際空港騒音對策委員會와 협의를 한 결과, 주택 방음시설 설치와 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9월에 피해주민들로부터 다시 이제는 移住對策을 포함해서 현금을 보상해 주고 소음기준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다시 있어서 建設交通部와 環境部에 건의한 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建設交通部에 건의하였으나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江西區와 陽川區 住民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소음피해대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96년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陽川區 新月洞, 江西區 空港洞에 航空機騒音電光板을 12월부터 설치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建設廢棄物 收集運搬業體 管理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11월말 현재 54개 업체로서 區廳長의 지도·감독을 받아 영업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와 밀접한 일부 중간집하장에서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民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民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업체로 하여금 헨스나 분진망을 설치하고 撒水施設과 公害防止施設을 보강토록 하고 있으며, 야간작업이나 소각행위 등은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54개 全 業體

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민원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파쇄기를 설치한 14개소에 대해서 是正命수를 해서 8개소가 시정되었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도 파쇄기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市民의 住居安定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再活用品 收去와 쓰레기從量制를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과 효율적인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의 수거체계는 95년에는 서울지역에 걸쳐 요일별로 수거체계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아파트지역과 주택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區廳長 책임하에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선된 수거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지역은 5종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수시로 분리 배출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洞長 책임하에 共同收集場을 운영하거나 또 門前收去方式 등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합해서 수거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洞이나 區 集荷場에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리수거의 어려움은 재활용품 불가능품을 혼합 배출하거나 선별작업에는 사실상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아파트지역에서 재활용품 판매시에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모아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景氣가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서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하락되어 民間收集商들이 일부가 수거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

라서 일부 자치구에서 적체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市内 28개 백화점에 설치 운영중인 再活用品交換販賣場에 값싸고 질좋은 재활용품을 취급토록 해서 시민들에게 재생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키며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市 산하 각 기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품제품 우송구매운동을 초·중·고등학교와 일반 기업체에서도 확산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건설시에는 재활용품 집하, 선별, 압축 자동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서 능률적으로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5억원 이내의 재생업체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해서 20억원 정도의 低利融資金을 조성해서 民間再生業體의 자생능력을 키워가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交通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室長 李浩助; 交通管理室長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洪奎 議員님께서 67번 시내버스가 경영난을 이유로 동서울터미널, 華陽里 구간을 운행하지 않는데 정상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버스회사가 시민교통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67번 동부운수 도시형버스는 당초 長旨洞에서 동서울터미널을 경유하여 華陽里까지 운행했습니다만 96년 10월 26일 主事務所 및 車庫地를 廣津區 九宜洞에서 松坡區 長旨洞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市의 路線認可命令 없이 무단으로 동서울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市에서는

5회에 걸쳐 관할 廣津區廳에 강력하게 지도단속토록 지시하고 해당업체에도 정상운행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廣津區廳에서는 96년 11월 1일 노선위반으로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였고 96년 11월 18일부터는 당초 노선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市에서는 시내버스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에 대한 제도개선문제는 市長님께서 답변말씀드렸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이 事業認可 당시에는 버스 212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馬場洞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쇄되면서 500여 대를 수용하여 운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저녁에는 도로에 버스가 주차해 있고 밤새 시동을 걸어 소음공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市에서는 동마장시외버스터미널을 都心 부적격시설의 외곽이전과 터미널시설의 현대화계획에 따라 상봉터미널과 동서울터미널로 분산 이전하였습니다. 동마장시외버스터미널에 수용된 시외버스중 京畿 北部 및 江原道 漢水 以北 방향은 85년 9월 3일 상봉터미널을 조성하여 이전하였으며, 忠北, 慶北 일부와 江原道, 京畿道 漢水 以南方向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城東區 九宜洞 地下鐵 2號線 江邊驛 앞에 동서울터미널을 조성해서 89년 9월 1일 공영개시를 하였습니다.

동서울종합터미널은 87년 12월 23일 공사를 시작해서 대지 3만 6,704m²에 지하 3층, 지상 7층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버스박차시설 212면, 승용차주차시설 319면을 확보하여 동마장터미널과 千戶營業所에서 운행하던 68개 노선 577대를 수용함으로써 동부지역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는 시외버스 운수회사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여 야간박차를 하도록 하여야 하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동서울터미널 부지 인접도로에 야간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외버스가 경유차량이어서 동절기에 엔진의 동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동을 꺾으로써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업체가 차고지를 조속히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시행하도록 시외버스 면허기관인 京畿道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터미널 사업자에게도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입주업체를 적극적으로 계도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林靜枝 議員님께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과 관련 버스시차제를 좁히고 버스요금을 내리고 버스전용차로를 러시아워 시간에만 허용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시차제를 좁히는 데 대해서는 버스의 배차간격은 노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5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버스 주행속도가 빨라져 종전보다는 배차간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선에서는 운전기사 부족 등을 이유로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확대, 버스 안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퇴근시 집중배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1副市長님께서 실정을 말씀 올렸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러시아워 때만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제는 수송분담률이 36.7%나 되는 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활성화와 자가용 등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유도하기 위해 버스의 신속성, 정시성 확보가 필요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상황은 러시아워뿐만 아니라 온종일 차량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전일제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제 실시로 일부 구간에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地下鐵建設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學載;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學載입니다.

金亨吉 議員님께서 지하철 시설물 현물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철은 건설공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검증과 시운전을 거쳐 개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地方公社에 대한 현물출자는 건설과정에서 투자된 공정별, 공구별 사업비를 준공 정산하고 취득된 토지에 대한 정리를 마친 다음에 출자하게 되므로 개통시기가 다소 시차가 있으며 현재 개통 구간별로 사업비를 정산하여 출자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인회계사의 감사나 국고보조금의 과목처리 등 회계상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전문

가들의 자문을 받아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의원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內務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相鎭; 內務局長 李相鎭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亨吉 議員님께서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고지서의 착오발급이나 공문서의 오분류, 민원대기시간 지체 등으로 시민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보상해 주는 리콜제도를 실시할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보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민원을 정확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보상 리콜제도에 대해서는 그 확대시행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라매공원 후문 주변 동작구 신대방동 706번지, 그리고 관악구 봉천동 1696번지 외 5개 지역이 5년이 넘도록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市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서 20m의 신림로와 40m의 신대방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은 새로이 형성된

주상복합지역으로서 현재 동작구와 관악구 간의 경계가 불합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행정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지역의 경계조정을 추진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과 또 자치구 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가지고 현재까지 그 경계조정을 못 이루고 있는 이런 복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작구측에서는 신대방동길과 신림로를 경계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관악구측에서는 신대방동길과 보라매공원 진입로 지역 내 12m 도로를 경계로 하자고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고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차피 당해주민들의 의견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자치구간에도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本廳 立場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區廳長과 해당 구에 촉구를 해 가지고 조속한 기일 내에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林靜枝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애공무원 고용비율 2%의 법정 의무고용비율 미달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市の 신체장애 공무원은 현재 498명으로 법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의무 인원 535명의 93.1%에 해당되고 있고, 또 이 법정고용비율은 2%인데 이 2%로 따진다면 1.8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48명을 채용하고 있고 연말까지 2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해서 98년까지는 법정 고용비율 2%를 충분히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財務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財務局長 權五虎입니다.

金亨吉 議員님께서서 96년 9월말 현재 서울시 자금 평잔이 1조 7,700억원인데 市에서 자금평잔을 어떻게 체크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금 평잔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매일 은행으로부터 세입·세출 日計表를 제출 받아서 市의 세입·세출, 정기예금현황, 이자수입관리, 자금평잔현황 등을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 내용과 대사를 하고 매일의 세입과 세출의 변동 자금 수지현황을 작성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세입징수액 계산서, 세출에 대하여는 매월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발행한 세입 및 세출금 월계대사표를 대사첨부하여 월별, 분기별로 監査院에 보고하고 監査院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金亨吉 議員님께서서 國稅인 유흥음식세 등 일부 부가가치세를 地方稅로 이양하는 법개정을 서둘 필요가 있는데 市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울 시세구조를 보면, 재산관련세가 58.3%를 차지하고, 소득관련세는 17.7%, 소비관련세는 1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부동산경기 안정화 등에 따라 세수신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가 재산관련의 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소득, 소비와 연계된 자연신장이 취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議員님께서서 지적하신 부가가치세 중 유흥음식분야는 소비관련 분야로써 과거에도 地方稅였던 것을 國稅에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地方稅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96년 6

월 26일자로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유흥음식분야가 77년도부터 國稅로 통합된 이후에도 위생업소의 업무는 地方自治團體가 감독하고 있고 납세관리면에서도 효율적이고 稅源이 地方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地方稅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도 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地方稅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安熙玉; 家庭福祉局長 安熙玉입니다.

鄭善順 議員님께서 보육사업 예산 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보육시설에 비해서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영세한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시설은 10월말 현재 총 2,721개소로서 이 중에 구립시설이 421개소, 민간시설이 2,300개소로서 민간보육시설이 그 숫자로서는 80%입니다. 그런데 보육아동의 수는 총 9만 1,000명으로서 이 중에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전체 보육아동의 58%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議員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保健福祉部の 保育事業指針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인 학교와 종교시설에 부설화해서 설치하는 費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학교, 종교시설에 부설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지원하는 이 보조금이 종교시설에는 임차시설이 많고 학교에는 관리운영상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保健福祉部에서 정한 지원목적 이외에는 우리 市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96년도에도 역시 학교, 종교시설의 설치비가 保健福祉部에서 사업량을 과다하게 배정을 해 주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대해 줄 것을 保健福祉部에 저희가 금년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반영이 된 채 국고보조금만 감액 변경 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市에서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육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금년 11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市長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市에서는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영아와 장애아를 보육하는 그런 시설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보육하는 시설의 문제라든지, 특히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민간보육시설의 지원 등 시민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춰서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洪鍾敏; 都市計劃局長 洪鍾敏입니다.

白懿宗 議員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瑞草區 瑞草洞 산 160-51 임야 7,200m²에 대해서 司法府에서 해제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市議會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여러 차례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나 白議員님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지 못하고 本會議까지 이르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瑞草洞 산 160-51 일대는 71년 8월 6일 建設交通部에서 서초보통공원으로 결정고시하고, 75년 7월 4일 서울市에서 지적고시한 공원용지입니다. 77년 7월 9일 공원재정비계획에 의거, 서초 근린공원으로 변경결정되어 계속 공원용지로 관리되어 왔으나 市에서 79년 7월 7일 공원이적고시 도면작성시에 축척 1/3000인 공원내부임야도와 축척 1/1200인 공원외부 구획정리환지도를 같은 축척으로 한쪽은 늘이고 한쪽은 줄이고 하여서 같은 축척으로 맞춰서 접합하는 과정에서 경계부위가 잘못 접합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이 실제로는 공원인데도 공원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열람도상에는 공원으로 관리하므로 해서 토지주가 도시계획선 지적고시 등 처분 무효소송이라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 93년 2월 9일 우리 市가 패소한 바 있는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大法院에서 패소한 판결내용은 그 문구를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지적고시도면에 잘못이 있다면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만 승인 고시된 도면을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도시계획열람도를 별도로 만들어 이에 의하여 지적고시도

면에 우선하여 갈음할 수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瑞草區廳에서 이에 따라서 93년 5월 20일 도시계획결정고시 내용대로 경정고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95년 9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동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거부 취소사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려면 都市計劃法 절차에 따라 관계 地方議會의 의견을 듣고 都市計劃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93년 5월 20일 瑞草區에서 행한 경정고시는 당연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정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96년 1월 17일 瑞草區廳長이 도시계획변경 요청하여 현재 市議會에 의견청취중에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市議會의 의견청취 및 都市計劃委員會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계획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원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끝나면 우리 市에서는 98년도부터 우선적으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住宅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住宅局 소관사항으로서 전일 보충질문을 주신 崔鍾根 議員님, 그리고 金周喆 議員님, 金亨吉 議員님, 林靜枝 議員님, 白懿宗 議員님께서 각각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林靜枝 議員님께서 질문 주신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市長님께서 답변이 있으셨기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관련한 再開發事業條例案에 대하여 崔鍾根 議員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어제 답변에서 재개발지구 내의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개발 임대주택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설명드리다 보니 崔議員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정도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議員님의 지적말씀과 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의 차이점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첫째, 재개발업무가 국가위임사무라는 지적말씀에 대하여 저는 답변드리기를 地方自治團體 事務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답변을 드렸고, 또 다른 하나 큰 차이점은 재개발 임대주택에 관하여 조례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없다는 지적말씀에 대하여 재개발에 사업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안에 관련규정을 마련하였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市議會 都市整備委員會에서 검토중인 만큼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법리적인 문제에 각별히 유의하여 처음부터 천천히 법률전문가나 관계부서의 법률 검토 그 결과를 추후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지적말씀 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시 생각하건대 전일 보충질의에서 崔議員님께서서는 재개발 임대주택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엄격한 법적 검토를 거쳐 中央政府로부터 재원조달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과 관련조례의 적법적 시비를 아예 없애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신 것이라고 볼 때 아주 좋은 지적말씀이라 여겨서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세입자 대책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建設交通部에 법률개정도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周喆 議員님께서 道谷洞 102층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그것이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또 도로확장을 위해서 시설녹지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녹지 본연의 시책에 역행한다라는 지적말씀을 하시면서 서울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질문원고를 배부했더니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문에 김을 뺐다라는 불쾌하다라는 뜻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102층 빌딩 신축예정지는 江南區 道谷洞 467번지상의 대지로서 현재 토지용도가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지난 9월 17일 건축 허가권자인 江南區 廳長에게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이 빌딩의 건축계획은 관계규정에 따라 지난 5월 9일 建設交通部의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바 있고, 지난 5월 30일에는 우리 市 建築委員會에 건축계획심의회가 신청이 되어서 그 사이 제반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후에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건축계획 및 고층건물로 인한 일조권, 지진, 바람, 음영 등 제반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96년 9월 4일 심의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변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재천변 시설녹지의 도로화 문제는 지난 96년 5월 9일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道谷洞 단지와 주변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교

통량 분석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이나 우리 市에서도 시설녹지 훼손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 등 문제가 발생되어 건축 허가권자인 江南區廳長에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보완조치는 96년 11월 16일 江南區廳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議員님께서 이에 대한 질문서를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기자회견 등을 한 사실은 그야말로 양심을 걸고 전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전후반 사정이 議員님께서 불쾌히 여기실 사안도 일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金亨吉 議員님께서 銅雀區 銅雀洞 산 11번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검토할 의사가 없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銅雀區 舍堂洞 산 10-5번지와 산 10-1번지는 현충로 공원 용지로서 이 중 일부 토지에 약 8동의 무허가건물들이 점유하고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민이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지 않은 임상이 양호한 주변공원용지를 함께 개발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공원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 주시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이 점유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추진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시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더욱 주민 간 합의가 계획되고 있음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白懿宗 議員님께서 蘆原區 孔陵洞 소재 삼육대학교가 무리한 건축행위를 일삼아 왔고 부단히 묵인한 사유가 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蘆原區 孔陵洞 26번지, 21번지 대지면적 15만 213m²상의 삼육대학교의 용도지역 및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로서 지난 59년 9월 9일에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해 오다가 79년 1월 9일 도시계획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되었으며, 都市計画法施行規則 제 7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아 학교시설로 증축허가되었으나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시설물즉, 본부석, 강당, 다목적실, 강의실 등이 학교경계선을 침범하였거나 사전입지되었거나 또는 무단증축되는 등으로 建築法 및 都市計画法을 위반하여 蘆原區廳에서는 93년 및 96년에 각각 건축주 등을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무단침범한 삼육대학교 재단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95년 3월 27일 蘆原區에 요청하여 동년 10월 24일 蘆原區 都市計劃委員會 심의와 동년 11년 10일 도시계획안 공고를 거쳐 95년 11월 29일 도시계획 학교변경 결정을 蘆原區에서 우리 市에 요청하여 현재 市議會에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중에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권자인 自治區廳長으로 하여금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住宅局 所管 답변드렸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道路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路局長 徐茂田; 道路局長 徐茂田입니다.

道路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議員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周喆 議員님께서 도림로의 조기확장과 永登浦驛 횡단고가도로가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차량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로는 경부철도와 교차하는 도로로 폭 25m로 기 개설되었으나 동 지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78년 12월에 30m로 확장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한 바 있으며, 90년부터 92년까지 1차적으로 철도 건널목의 입체화를 위하여 도림고가도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접속도로구간은 95년부터 착수하여 도림로까지는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永登浦驛 高架道路는 폭 4차선에 연장 1,060m로서 지난 92년에 착공하여 금년 7월말에 개통한 바있습니다. 본 고가도로 서쪽 접속구간에 재래시장 등이 연접하여 있는 등으로 市場이 형성되는 시간대에는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속도로구간의 무단주차를 정비하는 등 永登浦區廳과 협의하여 고가도로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洪奎 議員님께서 강변도로나 올림픽도로는 차선 폭이 넓고 고속질주 교통량이 많아 소음공해가 크므로 방음벽을 전 구간에 걸쳐 설치하여야 되는데 紫陽洞 新紫初等學校 및 老遊洞처럼 부분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방음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도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방음시설 설치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그 동안 자치구에서 요

구한 방음시설 설치요청 지역에 대하여 우리 市 保健環境研究院에서 소음도평가, 방음벽설치 가능여부 및 효과에 대하여 조사한바, 총 318개 중 議員님이 지적하신 지역을 포함하여 105개 지역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요사업비만 해도 600억원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음벽은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지역 전체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소음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市 재정형편상 민원지역에 대하여 일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나 자동차 전용도로변의 학교, 공동주택 등 방음벽 설치효과가 큰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下水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局長 崔在範; 下水局長입니다.

먼저 金洪奎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市的 기본정책이 녹지공간과 주차장확보가 기본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비싼 토지를 사서 확보를 하는 것보다도 우수지의 공간을 덜어서 주차장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廣津區에 있는 紫陽遊水池가 주변환경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여기를 복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87년부터 우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체 우리 서울시 48개의 복개할 수 있는 우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모두 24개소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쓰고 또 일부 청소차고로 쓰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만 우수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紫陽遊水池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지역이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성 때문에 민자사업의 희망자가 없어서 아직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市費로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鄭善順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지하수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市가 아직도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뭐냐, 그리고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오염을 방지해서 되겠느냐,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수사용은 94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전부 자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지하수를 쓰고 싶은 사람은 아무런 규제가 없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8월부터 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지하수사용에 대한 규제를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대상이 하루에 30톤 이상 쓰는 지하수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조사를 해본 결과, 94년말에는

모두 1만 7,600개가 있었고, 95년에는 1만 5,000개가 있었습니다. 지하수 사용추세는 점점 줄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의 수질은 굉장히 불량합니다.

실제로 음용수로, 먹는 물로 쓰는 지하수가 약 1,6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약 26정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市政開發研究院에다가 지하수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전문가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따라서 서울시의 지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관리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하수관리보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地下鐵公社 社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地下鐵公社 社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亨吉 議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地下鐵公社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수권자본금 중에서 미불입된 자금 그리고 또 추가로 수권자본금을 증액해야 되겠고 단계적으로 호선별을 민간업체에 불하하든지 또 창동기지를 외곽에 옮겨서 그 비용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재정관계, 특히 어려운 부채문제에 대해서 차원높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미불입 자본금은 저희들 公社가 市에 요구를

해서 매년 출자를 받고 있다 하는 사항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또 추가 수권자본금 증자는 현재 2조 4,000억원입니다만 약 3조원 정도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별로 사업부제를 도입해서 단계적으로는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방법으로 노선별 본부제 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노선별 본부제를 경영개선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면서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저희들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에게 노선별로 불하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議員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익사업임을 감안해서 현 단계는 고려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검토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마 현 단계로는 검토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창동기지 이전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문제는 픽 생산적인 그런 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 5만 2,000평 정도 되는데 하루에 약 350여 대 차량이 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좋은 부지가 생겨서 이전한다 하더라도 기지를 새로 만들 때까지는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 이중투자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현재 비싼 땅, 지금 창동기지가 상당히 비싼 대지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번두리로 기지를 옮겨서 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京畿道쪽에 땅을 구입해서 기지를 만드는 방법도 절차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지를 확보해서 건설할 때까지는 이중으로 투자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 장기적으로 우리 경영개선이나 저희들 재무구조 확충을 위해서는 늘 보고를 드려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부채규모를 동결시키기 위해서 원금은 지금 공채자금으로 상환을 하고 있고, 이자부담에 대한 상당액과 특정시설의 개량 투자비는 저희들 市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면서 현재 가장 문제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원가미달의 운임원가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원가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켜가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당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감량경제에 대한 절감문제라든가, 부대사업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政府와 市에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議員님 충고해 주신 것 널리 저희들 감안해서 재정문제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鄭善順 議員님 지적해 주신 1호선이 노후차량이 되어서 상당히 승객들에게 불편감을 주고 있다 하는 말씀 전적으로 저희들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

문에 建設交通部에서 금년에 11월 7일에 내구연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都市鐵道法施行規則 안에다 전동차는 25년으로 내구연한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차도 98년부터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차로 64대에 대한 예산 37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議員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차, 폐차해서 새로운 차는 아마 98년부터 들어올 것이다, 왜냐 하면 제작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분야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대차, 폐차까지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中等教育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教育局長 孔貞澤; 中等教育局長 孔貞澤입니다.

林靜枝 議員님께서 서울特別市 女學生生活教育院의 임대기간의 만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女學生生活教育院은 지난 84년부터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무상임대받아 한국여성으로서의 덕성과 지혜를 가르치는 중요한 생활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오고 있었습니다. 女學生生活教育院은 매년 3박 4일간의 여고생 생활교육을 32기에 1만 2,000여 명, 학부모 특별연수를 3회에 걸쳐 300여 명씩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중에는 수련시설 개방으로도 학생들에게 널리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 2월에 임대기간이 끝나 우리 教育廳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教育廳 형편으로는 새로 부지를 마련하여 건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육영회 쪽에 사정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려고 생각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金相男 議員님께서 어제 추가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정고등학교 내신성적 통합문제에 대한 발생원인, 과정 그리고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정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인 학교로서 과정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각각 내신성적을 산출해 왔습니다. 남녀를 비교해 볼 때 남학생보다 비교적 성적이 높은 자연과정의 여학생측에서 96년 2월경부터 남녀학생을 통합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권재중 교장님이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자 남녀학생의 학부모가 대결양상을 보이면서 격화되었습니다. 통합을 요구하는 자연과정의 여학생측은 동일한 교과를 같은 단위수로 이수하는 과목은 남녀를 통합하여 성적을 산출해야 한다는 논리와 남녀평등과 기회균등원리의 적용을 주장하며 약 2개월간 등교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분리산출을 요구하는 자연과정의 남학생측은 5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2학년때 이미 분리산출하였고, 사전예고가 없었으며, 계열선택은 자유의사에 의해 학부모 동의하에 실시하였으며, 남녀 분리산출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의 형태대로 분리산출을 주장하였으나 3월 23일 당시 구정고등학교 교장은 1·2학년은 통합운영, 3학년은 분리산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입시에서 대학별고사가 폐지되고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산출시 석차백분율을 적용하는 내신성적 반영에 대한 이

해관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후 教育委員會가 자연계 여학생 학부모의 요청으로 청원 심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教育委員會가 내신성적으로 남녀통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7월 3일 教育監에게 통보함에 따라 教育廳에서는 7월 5일 통합을 권고하는 공문을 구정고등학교에 보낸 후 7월 13일 구정고 교장에게 책임을 물어 전보조치하고 후임으로 이석홍 교장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教育廳이 직접적으로 시정토록 하지 못한 것은 教育法施行令 제78조와 教育部의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통합이나 분리산출 여부는 學校長에게 위임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教育廳에서는 통합을 검토하도록 권고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임 이석홍 교장은 통합의 방안을 포함하여 24명뿐인 자연계 여학생의 불이익을 만회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8월 21일 종전대로 분리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한다는 결론을 내려 教育廳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教育廳에서는 교육개혁의 추진방향이나 새로이 검토하는 교육과정 운영방향을 볼 때 통합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教育委員會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教育廳에서 구정고등학교에 11월 19일 재검토 촉구공문을 보낸 결과, 11월 21일 3학년은 현행대로 분리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구정고등학교의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구정고등학교 교장은 학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임무를 띠고 부임하였으나 소집단인 자연계 여학생들의 불이익 해소방안을 마련치 못했고, 教育廳의 생각과 教育委員會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자연계 여학생 학부모에게 피력한 바 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전산화하여 教育部에 제출하였으므로 입시에는 분리산출한 성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教育廳의 입장은 서울시내 남녀공학인 38개 고등학교에 알려 크게 물의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남녀 내신성적을 통합하여 산출하는 방향으로 권장해 나갈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끝으로 社會教育體育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 教育廳 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입니다.

林靜枝 議員님께서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날로 늘어나는 마약, 약물 오·남용, 성폭행, 학원폭행, 가출 및 비행 등 각종 청소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주요과목으로 채택하여 전문교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보건교육방향을 설명해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약물 오·남용 등 청소년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생선도 차원에서 양호교사의 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 敎育廳에서는 이런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양호교사로 하여금 성교육, 약물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해 주당 6시간씩 교실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초등교육에서는 미흡하나마 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보건 교과목이 독립되어 있지 못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정상적인 교과과정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보완적으로 생물, 환경 교과담당 상담교사들과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보건 교과목의 신설과 양호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도록 敎育部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議員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호교사 연수 등을 통해서 상담교사에도 노력을 하여 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해결에 대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林靜枝 議員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급식에 정부미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쌀 문제를 학교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물으셨고, 또 학교급식비 1,115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학교급식 비리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학교급식품으로서 우리 나라 전통 식생활인 쌀 문화를 계승하고자 주식은 쌀 중심의 급식을 실시하

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급식에 따른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식품비의 절감을 위해서 서울시의 협조로 시중보다 50% 정도 싼 정부양곡을 공급받아 현재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議員님 말씀과 같이 과거에는 쌀 품종이 좋지 않고 여러 해 묵은 정부미 공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을 산 일도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95년도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된 쌀로서 시중의 일반미와 같은 수준의 정부미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의 도정도가 12분도인 반면에 급식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정부양곡은 10분도로서 외형이나 맛에는 다소 떨어진 듯하나 반면에 영양적인 면에서는 우수한 점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쌀을 포함한 모든 급식품 선정 및 급식비 결정은 學校給食法施行規則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學校給食委員會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教育廳에서는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장기 초등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쌀을 주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학생 건강보호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학교급식에 일반미를 포함해서 양질의 쌀이 공급되도록 적극 권장·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식당 급식비는 평균 1,100원으로서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영양공급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에 의한 균형적인 식단운영을 하여 학교급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관련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식실 건축 및 조리기구 구매를 종전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했던 것을 지

역교육청별로 공동구매토록 하고, 또 각 학교의 급식품은 앞에서 말씀드린 學校給食委員會에서 심의 결정하는 등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급식과 관련된 부조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聲九;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崔鍾根 議員과 林靜枝 議員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崔鍾根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根 議員;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연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本議員이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住宅局長께서 제가 질의했던 모든 것을 수렴해서 재개발이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조레나 업무지침, 정관을 천백만 시민에 합당한 그런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고, 國家委任事務로 인정을 해서 中央政府로부터 법도 개정하고 예산을 豫決委에서 다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양해를 저한테 구해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聲九; 다음은 林靜枝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靜枝 議員; 民主黨 소속 林靜枝 議員입니다.

趙淳 市長은 주택공급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서울이 팽창할 만큼 팽창하여 파괴 일보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즉,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용적률 270에 만족할 때가 아님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 諮問委員會의 자문을 받을 것을 부탁하고, 執行部는 시민들의 폭넓은 여론을 참작해 21세기의 내

일을 생각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을 촉구합니다.

서울市廳은 마치 버스업자의 대변인인 것 같은 의심을 갖게 합니다.

버스업자의 입장을 변명하기에 바쁘니 천백만 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노선을 제대로 지키는 버스회사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버스 67대를 보유한 버스회사가 47대는 노선을 지키지만 20대는 수익성이 좋은 노선으로 투입된다는 사실입니다. 버스요금이 400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기보다는 인하 요구의 원인을 밝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의기양양한 답변은 배신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만입니다.

○副議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林靜枝 議員님, 지금 답변 안해도 되겠지요?

(議席에서 林靜枝 議員 : 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議員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趙淳 市長 및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本會議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各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199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 本會議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이상으로 제14회 정기회 제4차 本會議를 마치고 제5차 本會議는 12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05分 散會)

○出席議員 139人

慶奎福	高光哲	高溶振
郭順英	具哲會	金廣洵
金洛淳	金明坤	金明炫
金芳任	金相男	金成洙
金成春	金聖浩	金勝建
金勝子	金信浩	金寧剛
金永俊	金永春	金永姬
金玉源	김장주	金在京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金周喆	金天柱	金亨吉
金洪奎	金喜甲	羅太均
盧永奭	盧載東	文錫珍
文龍子	文八卦	閔庚燁
閔相今	閔鍊植	朴謙洙
朴南植	朴德基	朴相根
朴洙桓	朴時河	朴一男
朴贊國	朴贊秀	白南善
白聖德	徐在浣	成聖鏞

宋德華	宋仁回	申垆植
安秉昭	安順德	梁敬淑
梁東錡	梁會善	魚潤慶
呂鼎九	禹元植	劉大運
柳德烈	柳鍾秘	劉俊相
尹福永	尹鍾一	李康玉
李康珍	이금라	李基連
李達源	李斗鶴	李善宰
李成浩	李始英	李亮漢
李英順	李容富	李允中
李子源	李智文	林靜枝
林鍾化	張夏雲	張壽完
田炳萬	鄭炳權	鄭炳仁
鄭福辰	鄭善順	鄭水華
鄭在天	鄭鎮宇	鄭鎮澤
鄭泰宗	鄭韓植	鄭海純
趙上男	趙相勳	趙旬衡
池龍鎬	池昌洙	車星煥
崔光雄	崔永運	崔鍾午
崔俊和	崔昌奎	崔炯莘
黃炳五	黃仁明	黃正植
崔鍾根	金洙福	黃好淳
許光泰	洪性龍	洪淳喆
洪承采	洪月杓	金錫浩
金亨根	白懿宗	孫馥
吳世根	劉起鍾	金箕英

文一權 李聲九 李載震
李昌根 張精一 鄭址弘
崔鍾德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

市長	趙淳
政務副市長	崔洙秉
行政1副市長	金義在
行政2副市長	洪淳佶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環境管理室長	卓秉伍
交通管理室長	李浩助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學載
內務局長	李相鎭
財務局長	權五虎
家庭福祉局長	安熙玉
都市計劃局長	洪鍾敏
住宅局長	邊榮進
道路局長	徐茂田
下水局長	崔在範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

서울特別市教育廳

教育監	劉仁鍾
中等教育局長	孔貞澤
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

書面質疑書

○鄭善順 議員;

난지도 매립가스 성산 시영아파트와 윤창아파트 등 지역 주민 피해문제

다음으로 금번 국정감사시에도 지적 받은 바 있는 사항입니다만, 난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난지도 안정화 작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수차례 걸쳐 반복적인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서울시립대 수도권개발연구소의 조사 결과, 난지도의 매립가스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농도가 위험수준이라는 사실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장은 국정감사시 이 문제에 대해 지적받은 이후 추진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된 항목만을 측정하지 말고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과 백혈병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각종 중금

속의 농도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양천구는 환경오염 천국

강서구, 양천구는 대기오염과 항공기 소음 등 각종 오염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96백서 참조)

화곡동의 경우, 이산화질소의 평균 오염도가 0.051ppm으로 환경기준치 0.05ppm을 초과하고 있으며, 1일 환경기준치인 0.08ppm을 초과한 날도 한 달이나 됩니다. 또 1시간당 환경기준치인 0.15ppm을 초과한 날도 19일이나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곳이 문래동, 신설동 등이었는데 화곡동으로 변화된 것은 항공기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곡동과 인접한 양천구 신월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지 이미 오래된 곳으로 시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인 가중등가지속감각 소음도(일명 : WECPNL)가 지난 92년 88에서 95년에는 90으로 악화되었으며, 화곡동은 71에서 74로, 오곡동은 80에서 82로 각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오염원으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방지대책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거밀집지역에서 소음, 악취, 먼지 유발- 먼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주거지역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에게 소음, 악취, 먼지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5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30인 이상이 접수시킨 민원이 총 15건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해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무려 10건에 해당됩니다.

민원내용의 주요 요지는 조업중 발생하는 심한 먼지와 악취, 소음, 진동 등으로 주민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등 7개 구에서 같은 종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더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시 전체 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공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서울시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의 환경오염 유발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2년, 말뿐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것은 세
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주부들은 이와 같은 쓰레기종량제가 실패
했다고 말합니다.

복잡한 방법과 불편한 수거시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
용품을 분리 배출해 놓아도 신속히 수거해 가지 않고 장거
간 방치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거해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시 첫해인 95년 1월부터 9월까지 쓰레기배출량 중에
서 매립이 69.9%, 재활용이 29.6%를 차지하여 실시 전 매
립 78.8%, 재활용 20.6%에 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이 약
9%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1일 쓰레기배출량도 94년 1만
5,356톤에서 95년 1만 3,928톤으로 9.3%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해째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95년과 거
의 같아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쓰레기종량제의
효과가 서울시의 운영 및 관리의 소홀로 인해 절감되고 있
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품의 경우 종이, 유리병, 플라스틱, 고철, 알루미늄
캔, 의류 등 분리할 가짓수도 많습니다. 몇 몇 아파트단지
에서는 플라스틱의 경우번호에 따라 4가지로 분리하는 곳도 있
습니다.

또한 자치구에 따라 요일별 수거제를 실시하는 경우, 매일 그날의 재활용품을 시간에 맞추어 내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쓰레기종량제는 맞벌이 가정은 물론이고 주부들의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렇게 애써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제때에 수거하지 않아 주택가 골목마다 여러 날 적치되고 있어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시민들이 돈을 주고 구입한 종량제용 봉투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부피만 차지하는 재활용품을 넣어 두면 일반쓰레기들과 함께 수거됩니다. 또는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아도 따로 수거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를 목격하는 시민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시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데 웃돈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쓰레기행정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시일이 더 지나면 이와 같은 웃돈은 체계적으로 상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서울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청소행정이 행정 따로 실제 현장 따로 움직이는 행태는 언제 가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보다 체계적이며 획일적인 쓰레기행정을 위하여 시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혼합수거된 쓰레기는 소각시 다이옥신 등 많은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문제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노원·강동·일원소각장 건설 시 많은 주민들은 재활용품, 특히 종이와 플

라스틱이 함께 소각될 때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발생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목동소각장의 경우 환경부가 최근 조사한 다이옥신농도가 2.35ng으로 일본의 권고치 0.5ng, 독일의 기준치 0.1ng보다 3배 가량이나 높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장 큰 이유는 폐플라스틱 등 분리 배출된 쓰레기를 혼합해 소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온갖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장은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며, 성의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金洪奎 議員;

(質疑要旨)

교육청 지원, 풍납토성 조성 등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서울시가 예산부담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答 辯)

국가위임사무로서 정부의 지원이 없고, 우리 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수차 중앙정부에 시정을 건의해 오고 있음.

□ 교육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법적근거가 있어 불합리하다 하여 법을 무시하고 지원을 중단하기는 곤란하며,

□ 풍납토성 조성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서울시가 관리청

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의 복원 및 장기 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있음.